

研究報告 79  
1984. 12

# 離農民의都市適應과 社會統合에 관한研究

尹 汝 德(首席研究員)  
金 鍾 埰(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 머 리 말

1945 년을 前後해서 많은 開發途上國들은 그들의 落後한 사회를 近代化 하기 위해 先進工業國들의 發展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産業化를 추진했다.

이러한 産業化過程은 相異한 社會構造에 따라 그 社會 變動過程에서 보여준 여러 양상의 社會的 葛藤, 統合, 改革의 連續이었다. 여기에서 우리 사회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1960 년대를 頂點으로 國家 이데올로기였다고 볼 수 있는 近代化의 推進力은 종래의 傳統的 農耕社會였던 우리 사회에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변화를 초래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예라고 한다면 農村人口의 격심한 移動으로 볼 수 있고, 産業化 政策에 따른 그들의 人口集中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한 現象이 個人的으로는 일자리를 찾아서 혹은 더 높은 文化의 향유를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 機會上昇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過度한 離農의 現象은 社會적인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農村을 떠나 都市와 新興工業地帶에 定着한 사람의 社會統合의 過程은 先進工業國에서 경험했던 過度期의 現象으로 보지 않으려는 여러 가지 社會發展理論들이, 특히 後進開發工業國에서 提起되고 있다. 물론 離農現象이 農村社會의 問題만이 아닌 國民經濟發展段階의 틀에서 一元化된 視覺으로 보아야 하겠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그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진, 離農과 都市零細民의 都市適應과 統合의 過程은 어떤 樣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하는 점을 찾아 보자는 하나의 시도가 본 연구의 基本目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문제가 社會發展의 多樣한 변화와 깊이 關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變動過程을 설명키 위한 한 Paradigm 으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으나 어려운 여건에서나마 이 분야에 관심

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았다고 본다.

이러한 단계에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韓國社會를 설명할 수 있는 理論이 定立되었으면 한다.

1984.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榮 鎮

# 目 次

第1章 序 論 .....	1
第2章 韓國의 産業化·都市化와 離農	
1. 理論的 背景 .....	5
2. 離農의 推移와 特徵 .....	8
3. 都市 無許可定着地의 形成過程 .....	14
第3章 移住經路 및 都市定着過程	
1. 都市로의 移住 .....	17
2. 住居마련 및 都市定着過程 .....	25
第4章 經 濟 行 爲	
1. 就業經路 .....	30
2. 네트워크(Network) .....	33
3. 家口員의 노동(시장) 참여 .....	38
4. 農村과의 關係 .....	41
第5章 文化的 特性	
1. 農民文化的 變化와 連續 .....	44
2. 貧困의 특수한 文化? .....	47
第6章 要約 및 結論 .....	52

附 錄

1. 對象地域 概況 ..... 54

2. 事例調査 分析結果 ..... 57

3. 調査表 (이농민의 도시 적응과 사회통합에 관한 설문지) ..... 64

參考文獻 ..... 78

# 表 目 次

## 第 2 章

表 2-1 農村, 農家 및 農業就業人口의 減少動向, 1960 ~ 80	9
表 2-2 農家戶數의 減少動向, 1960 ~ 80	10
表 2-3 경지구모별 출타자 수의 분포, 1982	12
表 2-4 土幕民의 離村時期	15

## 第 3 章

表 3-1 出身 道	18
表 3-2 (주민등록) 전입신고 건수의 월별동향	19
表 3-3 서울 轉入前  소유경지면적	20
表 3-4 농촌(본가)의 경지구모	20
表 3-5  최초 移住地	22
表 3-6 移住에  작용하는 要因	23
表 3-7 서울에의 移入時期	24
表 3-8 移住年度	24
表 3-9  관내전출입 신고건수	27

## 第 4 章

表 4-1 職業別 移動人口(14세 이상)	31
表 4-2 家口主의 職業構成(S동의 사례)	39
表 4-3 家口員 就業形態의 分布와 特性	40
表 4-4 家口員 就業形態의 分布와 特性(S동의 사례)	41
表 4-5 耕地規模別 토지처분방법	42
表 4-6 送金方法	42

# 그림 목次

## 第2章

- 그림 2-1 이농의 유형 ..... 11
- 그림 2-2 不良住宅地區에 대한 政策의 變化 ..... 16

## 第3章

- 그림 3-1 도시 빈곤가족의 경제적 적응의 과정..... 25

## 第4章

- 그림 4-1 이농인구의 취업경로 ..... 32
- 그림 4-2 건설업 월별 피고용자의 변동, 1982 ..... 33
- 그림 4-3 수평적 연결망의 예: (건축) 노동일에 있어서의  
네트워크 형태 ..... 36
- 그림 4-4 수직적 연결망의 예: 건축노동자의 고용관계 ..... 37

## 第 1 章

### 序 論

韓國經濟가 高度成長을 거듭한 지난 20 여년간 農村社會가 경험한 변화의 폭과 깊이는 매우 큰 것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전반의 産業化와 都市化의 趨勢에 힘입은 農村住民의 都市로의 社會的 移動은 다른 社會變動의 結果로서 나타나는 것이며 동시에 다른 社會變動의 原因이 되는 것으로 연구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離農<sup>1</sup> 이 農村社會와 都市社會에 미치는 累積的 惡循環<sup>2</sup> 은 많은 政策報告와 學者들에 의해 지적되어온 바이지만, 이를 다룬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接近方法에 있어서는 人口學的 方法<sup>3</sup> 이, 分析水準의 면에서는 微視

- 1) 여기서의 離農의 개념은 “農家人口로부터의 離脫”을 좁은 의미의 離農으로 定義한다. 그러나 때로는 “農家, 農村, 農業으로부터의 離脫”을 넓은 의미의 離農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며 서술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년을 향한 農村人口의 展望과 對策」, 1983. 5  
崔 洋 夫, “農村發展과 農村計劃” 「國土計劃」 제 18 권 제 2 호 (통권 39 호), 大韓國土計劃學會誌, 1983. 12.
- 3) 대표적인 것으로,  
윤 중 주, “우리나라 인구의 도시화문제” 「사회학연구」 제 6 호, 이화여대, 1968.  
李 興 卓, “Urbanization in Korea ; Its Socio - political Aspects” 「한국사회학」 11 집. 1977.

의水準<sup>4</sup>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離農은 農民이 農村을 떠나오는 현상으로만 파악되었을 뿐 都市社會體系에 適應, 흡수되는 과정이나 統合의 Mechanism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離農은 農村住民의 都市로의 移動(農村人口의 감소)와 農家人口의 非農家人口로의 轉換(農家人口의 감소) 및 農業人口의 脫農業化(農業 就業人口의 감소) 등 서로 중첩되며 相互作用하는 現象들이 複合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全體 社會構造의 變動아래서 總體的으로 說明理解되지 않으면 안된다.

傳統的인 農耕社會에서 마을은 하나의 自給自足的인 生活單位(小宇宙)였으나 都市化의 물결은 점차 그 生活圈의 擴大를 가져왔으며, 商業化와 機械化의 進展은 小農中心의 經濟構造에 점차 異質性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家族構成에도 미쳐 農家經濟에 있어서 生産單位와 消費單位의 分離(家族의 分散을 통한 分化,<sup>5</sup> 또는 兼業農의 增加)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종래의 農村=傳統=落後, 都市=現代=發展이라는 二分法的 假定을 붕괴<sup>6</sup> 시키고 점차 그 內部的 社會的 構成 및 다른 부문과의 사회적 관계를 밝히기 위한 理論的 實證的 연구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小集團의 微視的 現象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社會人類學的 接近方法을, 한국의 도시화 또는 人口移動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人口移動의 量

4) 金 一 鐵, “人口移動에 관한 社會心理的 小考” 「人口問題論集」 15. pp 5-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農村人口移動에 관한 社會學的 研究」 연구보고 62. 1983. pp. 47-50 참조.

5) 양 회 왕, “農村經濟의 상황과 農民分化” 「韓國社會研究」 제 2집. 한길사, 1984.

김 춘 동, “大農의 地主化 過程을 통해 본 現行 小作制度의 性格” 文化人類學, 제 1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4.

6) 徐 寬 模, “都市社會學的 새로운 方向” 韓國社會學研究, 제 6집.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1982. 12.

駒 井 洋, “發展途上社會의 都市にたいする二分論的接近の妥當性” アジア經濟, Vol. 21. No 12. 1980.

(Volume)과 質(density)의 거대함,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持續性 앞에서 說明力の 制限<sup>7</sup>을 露呈하게 된다.

농민사회의 연구로부터 “도시 속의 농민(peasant in city)”의 연구로 옮겨간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농민문화의 잔존 및 農民意識의 보존에 주목하여 왔다. 그 결과 離農民 또는 도시 무허가 정착지 주민의 특성이 다른 집단과 비교되어 記述되었으며, 이러한 배경 밑에서 ‘貧困의 文化’나 ‘周邊性’에 관한 수많은 논의가 행해졌다. 그러나 사회인류학자들에 있어서도 ‘빈곤의 문화’ 개념은 비판을 받게 되었고(Valentine, 1968) 주변성은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초기 도시화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점차 도시화의 총체적 구조속에서 새로운 사회에 統合되는 過程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이 도시사회체계에 참여하지 못함(주변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참여의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Perleman, 1976. p.251)

이러한 배경아래서 離農民的 都市適應과 都市社會體系에의 統合過程을 살펴보려는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1) 産業化의 進展에 따라 離農의 性格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2장)

2) 水平的 移動(농촌-도시 이주)이 垂直的 移動(地位上昇)에 어떻게 機能하고 있는가? (3장 1절)

3) 移住經路와 定着過程의 특징은 무엇인가? (3장 2절)

4) 經濟行爲의 分析(4장)

5) 農民文化의 變化와 連續을 어떻게 理解할 것인가? (5장 1절)

6) 貧困의 독특한 文化를 形成하고 있는가? (5장 2절)

7) 綜合的으로, 離農民은 都市社會體系에 統合되고 있는가? (6장)

7) Joan M. Nelson,

“Migration, Integration of Migrants and the Problem of Squatter Settlements in Seoul Korea. 1972.

빈센트, 브란트, “서울의 貧民家와 移住農民” 「한국의 전통과 변천」,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73.

이러한 작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意義를 가진다. 첫째, 농촌사회의 傳統的 均衡構造가 해체되고, 새로운 체제에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異質性의 增大와 社會的 分化에 따른 階層構造의 變化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도시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의 內部構成과 形成背景에 대한 實證的 자료를 제공해 준다. 셋째, 勞動市場의 展開에 따르는 勞動力移動의 규정조건을 규명해 주며 이는 결국 産業化·都市化를 설명하는 理論的 展望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해 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연구자들이 부딪친 첫번째 문제는 資料의 제약이었다. 全國的 水準에서 집계된 통계자료들은 複合的이고 客觀化하기 어려운 社會現象에 대한 分析에는 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分類, 收集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몇몇 사례연구들은 그 一面性和 非一貫性 때문에 一般化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에 기초한 理論的 展望 또한 現實에 適合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의 방향과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연구의 기초작업으로 기왕의 조사, 연구보고들에서 一般性이 높은 자료와 개념들을 抽出하여 再構成하고 그것의 現實適合性 與否를 검토하기 위한 事例調査<sup>8</sup>를 통해 앞으로의 본격적인 實證調査를 위한 假說形成을 1차적 목표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量的 分析보다는 質的 分析을 위주로 하였으며 앞으로 부단한 演譯과 歸納의 되풀이속에서 社會像의 再構成이라는 社會學의 課題에 보다 近接해 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따라서 이 글은 豫備的 考察 또는 試論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8) 조사방법과 대상지역의 개황은 부록 참조.

## 第 2 章

# 韓國의 産業化 · 都市化와 離農

### 1. 理論的 背景

초기 근대화론은 都市化를 사회경제적 發展과 동일시하였다. 도시인구의 성장은 바로 近代 工業部門의 成長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Chicago 학파의 대표자인 L. Wirth 에 의하면 都市化란 都市的 生活樣式 (Urban way of life) 및 行動 pattern (Behaviour pattern)이 형성, 확산되어가는 것으로 파악된다.<sup>1</sup> 따라서 1人當 국민소득의 향상, 産業構造의 變動과 더불어 都市化率 자체가 서로 다른 사회의 近代化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近代化란 農村社會에 존재하는 非近代的 요소(現存하는 西歐社會的 요소)로 대체되는 것이며, 都市化는 傳統的 農村社會를 成長의 極을 지닌 都市社會로 代替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農村 = 傳統 = 落後, 都市 = 近代 = 發展이라는 二分法的 假定은 單線的 進化論(unilinear evolutionism)과 함께 성장위주의 開發哲學의 기본가정을 이루었던 것이다.

---

1) Wirth, Louis,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 pp.8 ~ 20, 1938.

이러한 초기 都市化論의 樂觀論的 假定은 도시로 移住한 인구가 자동적으로 근대적 부문에 고용된다는 암묵적 가정을 전제로 한다. 이들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무허가정착지, 대량실업, 빈곤과 같은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거의 해결이 될 것이며 이농민들은 점차 도시체제 속으로 흡수될 것이다.”<sup>2</sup>

그러나 1960년대 초반부터 이런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전망이 없어지자 근대화론은 過剩都市化(over-urbanization)의 개념<sup>3</sup>을 발전시키게 된다. 과잉도시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문제의식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가 같은 공업화 수준을 가졌던 과거의 서구와 비교할 때 너무 많이 진행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제 3차 산업의 異常肥大化 현상과 마찬가지로 過密都市化 역시 제 3세계 나라들이 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적 산업부문에 취업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도시의 고용형태를 총괄하여 都市 傳統部門(Urban Traditional Sector)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후 도시의 고용창출능력과 과잉실업문제에 관한 ILO의 연구결과들은 도시저변에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소규모경제활동에 주목하면서 “非公式部門(Informal Sector)”의 개념을 발전시키게 된다.<sup>4</sup>

2) Moser, “Informal Sector or petty commodity production; Dualism or dependence in urban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vol. 6, No. 9/10, 1978, p. 1042.

3) 과잉도시화의 개념이나 기준은 학자마다 동일하지 않다. 예컨대 Davis와 Golden은 공업화 수준과 도시화를 시간은 무시하고 현재의 서구와 비교한 반면, Hoselitz는 같은 공업화 수준을 가졌던 과거의 서구와 비교한다. (Davis & Golden, 1955; Hoselitz, 1960)

4) 비공식부문의 개념 및 이론의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趙 驥, “한국의 도시 비공식부문 근로자에 대한 연구”, 이대논총, 1982.12  
 카말 살리, “비공식부문에서의 사람과 일”, 李効再, 許碩烈 編, 「제 3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한길사, 1983.

엘리슨, M. Scott, “자영업자란 누구인가”, 同書.

윤진호, “도시비공식부문”, 李大根, 鄭雲暎 編, 「韓國資本主義論」, 까치, 1984.

1971년 K. Hart 가 처음으로 “비공식적 경제활동”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래 이 개념은 ILO 에 의해 채택되어 개발도상국 도시경제에 관한 많은 연구가 “도시 비공식부문”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그 개념의 불명확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개념의 결점은 Bromley 가 잘 정리하고 있지만<sup>5</sup> 그 중 가장 중요한 지적은 그 개념이 근본적으로 관계 개념(relational concept)이 아니라 분류개념(classifying concept)이라는 점이다. 도시 비공식부문이라고 이름지워진 여러 경제활동들은 전체로서의 도시경제의 요소들이며 도시경제는 이 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총화(ensemble)로 보아야 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남미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 “周邊化(marginalization)”론이다. 그들은 남미의 여러 나라가 취한 자본집약적 공업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이농민들이 근대적 공업체계에 흡수되지 못하고 주변적 대증을 이루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사회에 대한 통합의 결핍을 강조하던 초기 사회학의 문헌에서와는 반대로 이들은 주변성을 사회체계가 유지되게 하는 통합의 특수한 형태로 생각한다.

영속적 현상으로서의 “주변성(marginality)” 개념은 도시의 저변계층이 근대적 산업부문의 임금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중시하고 결국 주변적 부문이 도시 자본축적에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전개되었다.<sup>6</sup>

5) Bromley 가 지적한 9가지 결점 중 중요한 점 몇 가지를 지적하면, ① 비공식부문을 확인하는 어려움, ② 이원론적 성격, ③ 농촌부문의 무시, ④ 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대해 가지는 경쟁적이고 종속적인 성격 무시, ⑤ 이웃, 가계, 민중, 경제활동과 기업의 혼동 등이다. (Bromley, “Introduction —why is it worth discussing?”, World Development, vol. 6, No.9/10, 1978, pp. 1034 ~ 35)

6) Bromley & Gerry, “Who are the casual poor?” in Bromley & Gerry (eds.) Casual Work and Poverty in Third World Cities, John Wiley & Sons, 1979.

Quijano, A., “The marginal pole of the economy and the marginalized labour force”, in Wolpe (ed.), The Articulation of Modes of Production, RKP, 1979.

주변화론에 대해서도 다른 근대화론과 마찬가지로 이분론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sup>7</sup> 실제로는 전형적인 주변적 부문과 역동적 자본주의 부문 사이에 수많은 경제활동들이 존재하며, 사회적 분업체계는 그 크기와 노동의 존재양태에서 연속선을 이루는 다양한 경제활동들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sup>8</sup>

주변화론의 설명이 한국사회에 얼마나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학계의 중요한 논쟁점의 하나가 되고 있다.<sup>9</sup> 그 비판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 이론이 주로 구조분석에 치중한 나머지, 산업화와 도시화의 역사적 고찰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이들의 발생지인 남미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공식부문의 취업이 훨씬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0</sup>

## 2. 離農의 推移와 特徵

한국에서 농촌·농가인구의 유출이 본격화된 것은 역시 1960년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부터이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공업생산은 GNP의 10% 내외에 불과하였고(농업생산의 풍흉이 景氣變動의 가장 큰 요인일 정도) 도시로부터의 고용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면서부터 도시에 있어서의 雇傭機會가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60년대 전반의 輸入代替型 공업화시기에는 고용기회

7) Gerry, 1979, p. 128.

8) Bromley & Gerry, 1979, p. 5.

앞의 카말, 살리(1983)도 참조.

9) 최근 서관모의 논문이 좋은 예이다.

서관모, 「한국현대사회의 계급구성과 계급분화」, 한국사회학회, 1984.

이 논문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검토와 비판이 필요하다. 우리로서는 제 2절의 분석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농촌사회의 내부분화와 단계적 변화에 따른 실증적인 검토가 결여되었음을 일단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10) 李珪範, “書評; 제 3 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고대신문, 1984. 4.

의 확대가 농촌인구를 직접 흡수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도시에 체류하고 있던 잠재실업자와 농촌의 비농업인구를 흡수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60년대 후반 이후 경제가 輸出指向的 工業化로 전환하면서부터 경기변동에 의한 고용기회의 확대는 확대와 축소를 거듭하면서 농촌의 농가인구를 흡수해 나갔던 것이다.

### 가. 農村·農家 및 農業就業人口의 減少

1960~70년대에 있어서 農村人口는 약 348만명이 감소했으며, 농가인구는 이보다 약간 많은 약 373만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동향은 6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였고, 70년대 전반에 약간 둔화되지만 70년대 후반에 들면서 한층 급격하게 진행되었음을 <表 2-1>은 보여주고 있다.

表 2-1 農村, 農家 및 農業就業人口의 減少動向, 1960~1980

단위: 1,000명, %

年度 또는 期間	總人口(A)	農村人口(B)	農家人口(C)	農業人口*	B/A	C/A
1960	24,989	16,042	14,559	-	64.2	58.3
1966	29,160	16,883	15,781	4,876	57.9	54.1
1970	31,434	15,782	14,422	4,916	50.2	45.9
1975	34,677	14,437	13,244	5,425	41.6	38.2
1980	37,436	12,561	10,827	4,658	33.6	28.9
年平均增減率						
1960~66	2.61	0.86	1.35	-		
1966~70	1.90	△ 1.67	△ 2.23	0.20		
1970~75	1.98	△ 1.77	△ 1.69	1.99		
1975~80	1.54	△ 2.75	△ 3.95	△ 3.00		

\* 農林水産業就業人口

資料: 최양부의, 「농가경제의 유형과 성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74, 1983. p. 14.

### 나. 農家戶數의 減少

農村, 農家 및 農業就業人口의 전반적인 減少와 함께 우리 나라의 農家戶數는 1967년을 피크로 하여 계속 감소하여 오고 있다. 1967년의 약

259 만호에서 1980년에는 약 216 만호로 그동안 43 만여호의 절대적 감소가 있었다.

農家戶數의 감소동향을 기간별로 보면 1975~80년간 연평균 2.0%씩 감소가 이루어져 1967~80년간에 감소한 농가호수 43만호 가운데 50%가 넘는 22만호가 1975~80년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表 2-2〉와 같이 耕地規模別 農家戶數의 減少動向을 보면 특히 1.0 ha 미만의 農家와 3.0 ha 이상의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경지규모별 농가호수의 구성에 있어서도 1967년과 1980년을 비교해 보면 0.5 ha 미만의 농가는 35.6%에서 29.7%로 낮아진 반면 0.5~1.0 ha의 농가는 32.1%에서 34.7%로, 그리고 1.0~2.0 ha의 농가에서도 25.8%에서 29.1%로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특히 1975~80년간의 급격한 농가호수의 감소를 전제로 할 때 1.0~2.0 ha 농가의 농가호수의 절대적 증가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表 2-2 農家戶數의 減少動向, 1960~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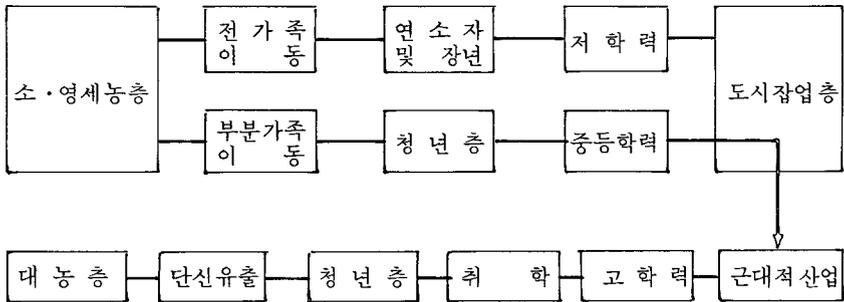
단위 : 1,000 호, %

年度또는期間	總戶數	耕 作 規 模 別						
		0.3 정보 미 만	0.3~ 0.5	0.5~ 1.0	1.0~ 1.5	1.5~ 2.0	2.0~ 3.0	3.0 정보 이 상
1960	2,331.9 (100.0)	379.8 (16.3)	437.1 (18.7)	838.0 (35.9)	399.3 (17.1)	163.1 (7.0)	94.9 (4.1)	19.8 (0.8)
1967	2,586.9 (100.0)	459.8 (17.8)	459.6 (17.8)	829.3 (32.1)	146.4 (17.3)	218.7 (8.5)	134.5 (5.2)	38.6 (1.5)
1970	2,483.3 (100.0)	463.0 (18.6)	395.9 (15.9)	824.3 (33.2)	446.1 (18.0)	193.3 (7.8)	123.4 (5.0)	37.3 (1.5)
1975	2,379.1 (100.0)	404.1 (17.0)	381.2 (16.0)	828.2 (34.8)	430.7 (18.1)	187.2 (7.9)	111.7 (4.7)	36.0 (1.5)
1980	2,155.1 (100.0)	315.8 (14.7)	323.9 (15.0)	747.6 (34.7)	438.5 (20.3)	190.7 (8.8)	107.6 (5.0)	31.2 (1.4)
年平均增減率								
1960~67	1.5	2.8	0.7	△1.5	1.6	4.3	5.4	10.0
1967~70	△1.4	0.2	△4.9	△0.2	0.0	△4.0	△2.8	△1.1
1970~75	△0.9	△2.7	△0.8	0.1	△0.7	△0.6	△2.0	△0.7
1975~80	△2.0	△4.8	△3.2	△2.0	0.4	0.4	△0.7	△2.8

자료 : 최양부의, 상계서, p. 20.

이 기간 동안의 이농의 특징은 倉持和雄(1983)이 다음의 그림으로 간략히 정리한 바 있다.

그림 2 - 1 離農의 類型



자료 : 倉持和雄, “韓國における農村·農家人口の流出”, 「Asia 經濟」, 1983. 5.

여기서는 倉持和雄의 논문이 간과하고 있는 점 몇 가지를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倉持의 분석은 주로 1960년부터 75년까지의 기간에 걸친 몇몇 사례보고를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75년 이후 이농이 다시 급증한 것에 대한 설명이나, 그 전의 기간에 비해 청년층의 부분가족 이동이 가지는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sup>11)</sup>

11) 이것과 관련하여 농가인구의 계층별, 형태별 유출에 관한 배진한의 추정(1960~1975)은 매우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배진한, “農村勞動力流出과 勞働市場”,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논문, 1977.

필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의 추정을 시도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실증조사에 의한 逆推定의 방법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이형덕, 김종덕의 사례연구는 최근의 부분가족 이주자는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과거로 갈수록, 이주후에 분가하여 새로운 가족을 이룬 사람은 전가족이동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형덕, 김종덕, “農村의 家族移住에 관한 연구”, 「農村經濟」, 제 5권 제 1호, 1982. 5.

이것은 동 기간 동안 농가인구의 감소율이 농가호수의 감소율보다 높은 것을 보아 알 수 있다(이는 농가인구의 자연증가율이 감소함으로써 평균 가구원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農民分화가 “家族의 分散”을 통한 특수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설(양희왕 1984, 김춘동 1984)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의 분석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둘째, 이들 單身移動者의 출신농가가 계층별로 어떠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은 현재 農民階層의 성격과 全體社會에서 農民階層이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表2-3〉은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일계부(1982) File에서 집계한 출타자수이다. 표본의 규모(3,333호)로 보아 전국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총출타자의 76.6%가 1.5 ha 이하(1982년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가 100%인 선)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계층별 출타자수를 출타이유별로 보면 상층으로 갈수록 취업을 위한 이동의 비중은 줄고 취학을 위한 이동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表 2 - 3 경지규모별 출타자 수의 분포, 1982

경지규모 출타이유	~ 0.5 ha	0.5 ~ 1.0	1.0 ~ 1.5	1.5 ~ 2.0	2.0 ha ~	계
	취업	372 (18.9) (67.4)	708 (36.0) (64.9)	497 (25.2) (55.5)	228 (11.6) (54.8)	164 (8.3) (45.6)
취학	105 (12.9) (19.0)	210 (25.8) (19.2)	261 (32.1) (29.2)	111 (13.7) (26.7)	126 (15.5) (35.1)	813 (100.0) (24.5)
군입대	48 (12.7) (8.7)	128 (33.8) (11.7)	90 (23.7) (10.1)	58 (15.3) (13.9)	55 (14.5) (15.3)	379 (100.0) (11.4)
기타	27 (17.7) (4.9)	45 (29.6) (4.1)	47 (30.9) (5.3)	19 (12.5) (4.6)	14 (9.2) (3.9)	152 (100.0) (4.6)
계	552 (16.7) (100.0)	1,091 (32.9) (100.0)	895 (27.0) (100.0)	416 (12.6) (100.0)	359 (10.8) (100.0)	3,313 (100.0) (100.0)

자료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일계부(1982)에서 집계

세제, 이들 단신이동자의 이주 경로는 Todaro의 2단계 이동론에 따라 농촌 → 도시 전통부문 → 근대적 산업부문에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점차 농촌 → 근대적 산업부문에로의 직접이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도시 노동시장에서 잠재적 실업자의 비중이 줄고 「인력난」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는 관계가 깊다.<sup>12</sup>

이렇게 이농의 성격이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農民階層의 分化和 勞動市場의 展開를 포괄하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① 農耕社會의 構造 變化와 共同體의 解體過程,<sup>13</sup> ② 農業勞動力 構造의 변화 특히 1970년대 전반의 年雇(머슴) 체제의 붕괴와,<sup>14</sup> ③ 따라서 移動勞動力의 성격도 遊休勞動力의 이동에서 必要勞動力의 이동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들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sup>15</sup>

12) 조선일보, 1984. 5.29 일자.

산업체 특별학급이 설치된 1970년대 후반부터 중졸자 또는 고졸자를 직접 채용하기 위해 구로공단의 기업체와 농촌의 학교간에 자매결연을 맺는 수가 늘고 있다. 또 필자들이 면접한 근로자들도 이주 당시 직장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응답이 매우 많았다.

13) 崔洋夫外, 「農家經濟의 類型과 性格」, 韓國農村經濟研究院, 연구보고 74, 1983. 12.

李萬甲, 권태환, 신용하, 「새로운 工業團地의 형성 이 農村社會 構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考察」,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979. 조옥라, “인류학적 관점에서 본 자연부락 연구”. 「韓國文化人類學」 제 13집, 1981.

14) 倉持和雄, “70年代 韓國における 農業勞働構造의 變動”, アジア經濟, 1984. 1.

李貞煥外, 「農業機械化 長期計劃을 위한 基礎研究」, 연구보고 66,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金聖昊, 「農地所有制度에 관한 調査研究」, 1983,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5) 도시 노동시장의 전개와 관련하여 지적해 둘 것은 “주변화” 또는 “비공식 부문의 이상비대화”라는 가설인데 1960~81년간 도시 전통부문의 취업자가 15.5%에서 32.1%로 2배 성장한 것에 비해 근대부문(5인 이상 제조업부문)의 취업자는 7.1%에서 24.7%로 3배 이상 성장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배무기, “韓國勞働經濟의 構造變化”, 「經濟論集」, 1982, p. 573.

표 참조.

필자들의 생각으로는 “충분한 산업화를 수반하지 않은 도시화=주변화”

### 3. 都市 無許可定着地の 形成過程

1950년대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된 都市化 現象은 戰後 都市地域 內 就業機會의 擴大, 農村-都市間의 隔差, 都市生活에 대한 憧憬 등의 이유로 農村地域의 潛在實業人口가 移動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이들 移住者들 중 教育과 技術水準이 낮고 생계수단이 결여된 사람들은 도시 번두리에 밀집하여 거주하면서 無許可定着地<sup>16</sup>를 形成하게 된다. 여기서는 그 시기별 특징을 3개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가. 1945年 以前

본격적인 都市化 現象이 나타나고 도시지역 내에 영세민들이 밀집하여 거주한 것은 식민지시대에서부터일 것이다. 農土를 잃고 도시로 이주해 온 영세민들은 대부분 일반주택의 행랑에 거주하거나 空閑地, 官有地, 私 有地 등에 움막 또는 土幕을 짓고 거주하였다.

이들 土幕民<sup>17</sup>들은 市內, 郊外를 불문하고 堤防, 강가, 다리밑 山林의 遊閑地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극히 초라한 움막을 짓고 거주하였으며, 나중에는 土幕部落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거주한 대표적인 지역은 서울의 弘濟町, 敦岩町, 阿峴町, 新堂町 등이 있었고 그외에는 소규모 단위로 시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생활은 京城帝國大學 衛生部의 조사가 있어 매우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농촌을 떠난 이유는 이촌시기에서 단적으로 드러

---

라는 가설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사회에 적용될 수 있으나 그 이후로는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6) 1980년 현재 불량주택은, 347,963동(10.3%)로 감소추세에 있다.

17) 土幕民은 “일종의 都市細民”으로서 “農民 및 도시의 하층생활자가 京城, 그외의 鮮內의 제도시의 한 구석에 정착군거하여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자”로서 이들이 다른 細民들과 구별되는 것은 그들이 토지를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것 뿐이다.

京城帝國大學 衛生調査部, 「土幕民의 生活·衛生」, 岩波書店, 昭和十七年, pp. 60 ~ 62.

나는 바 2~4 월은 춘궁기, 10~11 월은 收穫期(= 부채정리기)였기 때문이다.

表 2 - 4 土幕民의 離村時期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호 수	1	10	14	12	5	4	7	1	1	13	7	1	76

자료 : 상계서, p.92.

#### 나. 解放後~1960년까지

이 시기는 민족의 大移動期이며 試鍊期였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① 해방후 해외로 이주해 있던 동포의 歸還, ② 戰爭을 계기로 한 피난민들의 都市定着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당시 도시 지역내에는 生産基盤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주민들은 생계수단을 갖지 못하여 상당수가 都市貧困層으로 전락하여 정부가 제공한 수용소 시설이나 스스로 지은 假建物로 주택문제를 임시 해결하게 되었다. 이들은 國·公有地 등을 無斷으로 占有하여 대규모의 板子村을 형성하였으며 앞의 土幕民과 더불어 都市貧困層의 實象을 대변하고 있다.<sup>18)</sup>

#### 다. 1960年以後~現在

이 시기에는 농촌인구가 大都市를 중심으로 대량이주하였는데 이들 중 安定的 就業機會를 부여받지 못한 많은 인구는 새로운 都市貧困層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高地帶, 河川邊, 침수지역 등 경제적 이용가

18) 현재 도시 빈곤층의 약 10%가 이러한 難民으로 밝혀져 있다.(부표 참조)

치가 적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에 대한 政策的 對應의 변화과정은 集團移住定着, 市民 APT건립 이주사업, 陽性化 및 現地改良事業, 不良地區再開發事業 등의 순서로 변해왔으며 人口分散政策과 강력한 行政規制에 따라 都心の 無許可不良住宅은 점차 감소하고 변두리에만 일부 남아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간단히 정리한 것이 <그림 2-2>이다.

그림 2-2 不良住宅地區에 대한 政策的 變化

년 도	주 요 시 책	형성 및 철거 지역
1963	撤去移住定着事業 (不良住宅撤去 → 변두리로 移住)	형성지역 : 미아 1~8동, 상계동, 중계동, 구로 1~6동, 시흥 1~3동, 봉천 1~7동
1967	都心部近 丘陵地 무단점유지 철거 → 소규모 시민 APT 건설	시민 APT 건설지역 : 응암, 효창, 와우, 응봉, 금화
1968 ~ 1973	“陽性化 및 現地改良事業” (既存不良住宅 역할인정 → 현실적 타협책)	양성화 지역 : 이태원, 현저, 아현
1970	“現地改良事業”	충신동, 창신동, 혜화동, 신당동, 금호동, 옥수동, 하왕십리동, 홍제동
1973 ~ 1978	不良地區 開發事業 「주택개량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1973 ~ 1981)	아현 2, 고척, 면목 1·2, 미아, 옥수 3 : 재개발지구

자료 : 國土開發研究院, 「自助活動을 통한 都市서비스 供給改善方案 研究」, 國土研 82-11, 1982, pp. 31 ~ 61.

## 第 3 章

# 移住經路 및 都市定着過程

이농민의 눈으로 볼 때 도시는 취업의 기회와 노동량의 정도 그리고 소득의 측면에서 농촌보다 훨씬 좋으며 특히 병원이나 학교에 더 잘 접할 수 있는 도시환경은 생활수준에 있어서 과거의 농촌과는 비교될 수 없다. 3 장에서는 移住와 定着의 pattern을 기존연구와 우리의 사례조사를 비교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 1. 都市로의 移住

#### 가. 移住者의 前居住地

서울에 轉入하기 전의 거주지는 零細民인 경우와 일반주민의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全 社會階層의 경우 중부(경기·강원), 호남, 영남, 충청의 순인데 비해 零細民의 경우, 호남, 충청, 중부, 영남, 이북의 순이다.<sup>1)</sup> 이러한 경향은 低所得住民의 출신지역에 관한 대부분의 조사에서 공통적인 것인 바 우리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

註 1) 兪焄外, 「零細民 實態調査와 政策方向에 관한 研究」, 서울특별시 1982. p.85.

表 3 - 1 出 身 道

출신도		(여자) S 전 자	(남자) S 전 자	S 섬 유	S 동
서 울					4
경 기		30	4	3	3
강 원		4		2	2
충 북		8	3	5	7
충 남		35	4	4	4
전 북		18		9	11
전 남		17		17	10
경 북		11		3	3
경 남		2		1	3
이 북					5
무 응 답				33	2
계		138	11	77	54

표 3-1에서 S전자의 경우, 입사자격이 고졸이상이며 임금수준이 높은 점과 경기도에서의 출퇴근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야 하며, S섬유와 S동은 역시 호남출신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S동에는 같은 지역출신끼리 상호친목과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鄉友會가 여럿 있어 “도시 속의 시골”임을 느끼게 해 준다. 처음에 서울에 올라오면 옷차림이나 말투에서부터 “촌티”가 나서 원주민들로부터 “텃새”를 받게 되며 “같은 값이면 고향 까마귀도 반갑게” 된다. 따라서 향우회의 존재는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5장 참조), 그 회원수를 보면 湖南鄉友會(湖友會와 叀友會로 나뉘어져 있음)가 1,100명, 忠友會가 950명, 嶺友會 750명, 이북오도회가 650명이다.

<표 3-2>는 '83년 1년동안 S동에 전입한 가구의 주민등록 신고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여기서 보면 농촌→서울 또는 지방도시→서울로의 인구가동보다 서울→서울로의 인구가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서울 또는 지방도시→서울로의 인

구이동보다 서울→서울의 지역내 인구이동이 점차 늘고 있는데,<sup>2</sup> 이들 영세민 주거지역의 전입자가 점차 도시 내부의 사회적 분화(하향 이동)에 의한 것으로 변해가는 것을 엿볼 수 있다.

表 3 - 2 (住民登錄) 轉入申告 件數의 月別動向

자료 : 시흥 2동 동사무소에서 집계

년. 월	전 입 신 고 건 수			
	농촌-서울	지방도시-서울	서울-서울	계
'83. 1	68	40	81	189
2	60	53	73	186
3	99	65	56	220
4	92	53	184	329
5	76	70	214	360
6	64	67	223	354
7	61	50	160	271
8	55	44	129	228
9	41	42	125	208
10	81	62	218	361
11	98	89	174	361
12	96	53	111	260
계	891 (26.8%)	688 (20.7%)	1,748 (52.5%)	3,327 (100%)

※ 농촌은 군이하, 지방도시는 시이상임.

#### 나. 農村에서의 生活狀態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영세민들이 이주 당시부터 매우 가난했다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의 평가에서 만이 아니라 서울로 전입하기 전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의 경지구모에서도 나타나는 바 약 57.7%가 1,200평 미만을 소유한 영세농이었고 3,600평 이상은 15% 미만에 불과하다.

註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農村人口移動에 관한 社會學的 研究」, 연구보고 62. 1983. p.7.

表 3 - 3 서울 韓入前 所有耕地面積

면 적	구 분	빈 도	%
200 坪 未 滿		59	18.91
200 ~ 600 坪		62	19.87
600 ~ 1,200 坪		59	18.91
1,200 ~ 2,400 坪		55	17.66
2,400 ~ 3,600 坪		31	9.94
3,600 坪 以 上		46	14.74
合 計		312	100.0

자료 : 兪 焘 外, 전계서. p.61.

따라서 이주후의 생활은 “더 나아졌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더 못 살게 되었다는 사람들은 서울생활에의 不適應이나 疾病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하강이동한 것인데 고향을 떠난 것이 오래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우리의 조사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S전자의 경우 거의 전계층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고 있는 것은 이들의 학력때문인 듯하며 S동의 경우 무응답의 상당부분은 영세농출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表 3 - 4 農村(본가)의 耕地規模

경지규모	(여)	(남)	S 점유	S 동
	S 전자	S 전자		
1,000 평 이하	40	3	12	
2,000 평 이하	3			6
3,000 평 이하	6	2	3	5
4,000 평 이하	15	1		5
5,000 평 이하	6	1	2	1
6,000 평 이하	11	2		3
7,000 평 이하	6			
8,000 평 이하	4			
9,000 평 이하	1			
만평 이상	46	2		6
비 해 당 무 응 답			60	28
계	138	11	77	54

#### 다. 最初移住地

서울로 轉入해 온 후 맨처음 거주하는 곳은 移住와 定着의 패턴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영세민의 경우 과반수를 넘는 54.5%가 영등포인근지역(15.8%), 청량리인근지역(10.9%), 동대문시장인근지역(10.6%) 용산역인근지역(9.3%), 봉천동인근지역(9.3%)등 5개지역을 이주 후의 첫 거주지로 택하고 있다.<sup>3</sup>

이들을 출신지역별로 보면 그 비중이 가장 높은 호남지방 출신들은 영등포, 청량리, 봉천동, 동대문시장인근지역을 그 첫 거주지로 택하였던 경향이 높으며, 충청지방 출신의 경우에는 영등포지역이 가장 높고 다음이 봉천동이며, 영남지방 출신들의 경우에는 영등포와 청량리인근지역을 그들의 첫 거주지로 택했던 경향이 높았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강원도 출신의 영세민들이 첫 거주지로 청량리인근지역보다 영등포인근지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sup>3</sup>

이상을 종합해 볼때, 한국의 이농은 처음에는 “기차가 닿는대로”(= 무작정) 상경하여 역근처 또는 고향사람이나 친척이 사는 곳 근처에 집을 얻었으며, 최근의 단신이주자는 직장이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표 3-5 참조>.

남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특정 농촌지역의 출신이 도시의 특정변두리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현상은 눈에 띄지 않으며, 지방도시를 거쳐서 이주하는 Step migration은 그 비중이 매우 적음(10%정도)을 알 수 있다.

註 3) 兪焘 外, 전게서 . p.115.

表 3 - 5 최 초 移住地

	S 전 자 (여)	S 전 자 (남)	S 섬 유
영 등 포 인 근	19	4	26 **
용 산 역 인 근	4		2
봉 천 동 인 근	9	1	2
동 대 문 인 근	3		1
미 아 리 인 근	6	1	1
마 포 , 아 현 동	10		
강 서 구	55 *	1	
중 소 도 시	13 (9.4)	2	11 (4.3)
무 응 답 , 모 름	19	2	34
계	138	11	77

\* 강서구는 S전자 소재지임.

\*\* S섬유는 구로공단 소재 (호남출신이 많음)

## 라. 移住動機

이주동기는 주로 吸引要因 ( pull factor ) 과 排出要因 ( push factor ) 으로 나누어 설명되어 왔다. 즉 도시의 취업기회의 증대와 도시-농촌간 격차, 문화적 기회의 불리등의 요인이 상승작용을 하여 이농을 촉진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 표 3-6 > 은 이주에 작용하는 요인을 Pull factor 와 push factor, 개인적 수준과 구조적 수준으로 나눠서 정리한 것이다.

많은 조사보고에서 이주의 동기 (=이농의 요인) 을 밝히고 있으나 개인적 수준과 구조적 수준을 동시에, 또한 흡인 요인과 배출요인을 한국경제의 발전이라는 동일한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表 3 - 6 移住에 作用하는 要因

요 인	구 조 적	개 인 적
Push	경영형태 경지규모의 영세성 농외취업기회의 부족 의료, 복지시설 교통수단  교육시설의 부족 Communication의 미발달 농업의 상업화와 기계화 의부시장과의 관계 (생활권의 확대) 상대적 박탈감	기술부족 무료함, 일에 싫증을 느낌  구조적 압력
Pull	고용기회 보건·의료 서비스 교통	발전의 기회 가족이 있어서 도시에 대한 동경과 모험심 기대의 상승

#### 마. 離農의 類型

이농의 유형에는 ①가구구성원 전체가 이동하는 全家族移動과 가구구성원 중 일부분(1인 또는 2인이상)만 이동하는 部分家族移動이 있다. 이것은 이주시기 및 이주자의 연령과 관계가 깊다.

<표 3-7>은 영세민의 서울이입시기를 KDI가 조사한 것이다.

76-80년간에 이농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영세민중 이들의 비중이 적은 것은 다음의 이유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 최근의 이농은 청년층의 단신이동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이들은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직장가까운 곳에 자취 또는 기숙사에서 거주한다. 2) 최근의 이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할 때는 무언가 생활의 방도를 마련하고 오기 때문에 이들이 하강이동하여 영세민 주거지역으로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3) 전가족이동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도시 인구분산정책에 의한 행정규제 때문에 서울보다는 수도권으로 전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 3가지

이유중 어느 것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었는가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表 3-7 서울에의 移入時期 (단위: 家口, %)

	頻 度	百 分 率
1945 年 以 前	74	18.5
1945 ~ 50	9	2.2
1951 ~ 55	34	8.5
1956 ~ 60	39	9.8
1961 ~ 65	57	14.3
1966 ~ 70	97	24.3
1971 ~ 75	57	14.2
1976 ~ 80	33	8.2
計	400	100.0

資料: KDI 調査, 1981. p.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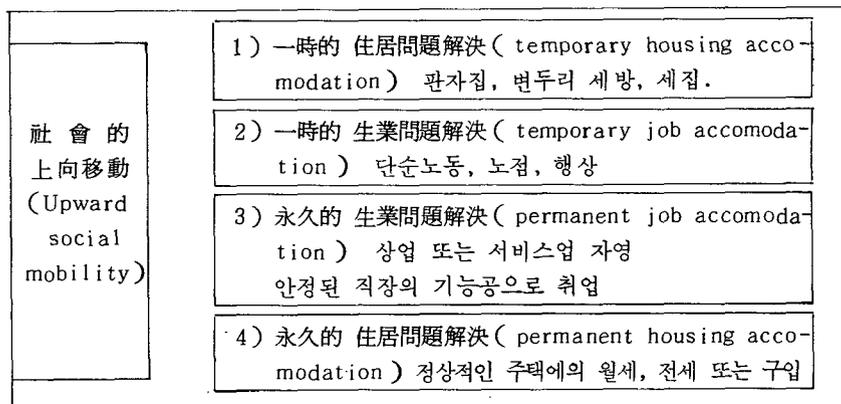
表 3-8 移 住 年 度

이주년도	(여) S 전 자	(남) S 전 자	S 점유	S 동
45 년 이 전				1 ( 2.1)
46 - 50		1		5 (10.4)
51 - 55				10 (20.8)
56 - 60				8 (16.7)
61 - 65	2	1		7 (14.6)
66 - 70	4	4		8 (16.7)
71 - 75	7	3	6	5 (10.4)
76 - 80	79	2	39	4 ( 8.3)
81 -	41		23	
무 응 답	5		9	6 (12.5)
계	138	11	77	48

## 2. 住居마련 및 都市定着過程

이주 초기부터 이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하는데 이들의 향상과정은 대체로 生計와 住宅문제해결에 그 초점을 두어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3-1 都市 貧困家族의 經濟的 適應의 過程



자료: 임 희섭, “한국에 있어서의 貧困問題”

「韓國社會開發研究 I」,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79. p.107.

즉 최초로 이주한 단계에서는 판자집이나 무허가주택 또는 월세등 住居費用을 최소로 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一時的 住居問題解決 (temporary housing accommodation)을 꾀한다. 그 후 비공식적인 단순노동이나 도시민을 상대로 한 노점 또는 행상등 불안정하고 영세한 상업으로 一時的 生業問題解決 (temporary job accommodation)을 꾀한다. 이 때 소득증대를 위하여 가능한 한 가족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사고나 질병등 빈곤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다음 단계로의

이동은 순조로워진다.

일시적 주거나 생업문제가 해결되면 약간의 생활기반을 근거로 점포를 마련하여 안정된 상업 또는 서비스업을 자영하게 되거나 성숙한 자녀들의 경제활동에의 참여로 안정된 永久的 生業問題解決(permanent job accommodation)의 단계를 맞게 된다. 이에 있어서 자녀의 교육수준에 따라 상하이동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산업사회에서는 직업의 전문화 정도가 높으므로 그에 따라 교육년한도 높게 요구되고 있다. 안정된 생업 문제가 해결되면 향상된 소득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주택을 세내거나 구입하여 永久的 住宅問題解決(Permanent housing accommodation)을 하는 단계에 이르고 비로소 새로운 생활기회를 통한 상하이동을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빈곤계층의 상하이동의 통로에 있어서 과거에는 다만 소규모 자영업에 제한되어져 있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 산업의 미발달로 技能人力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技能職이 또 하나의 上向移動의 통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기에 이르렀다.<sup>4</sup>

이들의 職業과 住居는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건축일용노동자들이 대부분인 무허가정착지 주민들은 고용과 보수의 불안정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세가 싼 곳으로” 잦은 이동을 한다. “직장을 따라” 이동하는 경우도 많다.

“윗동네”에 살던 사람이 “아랫동네”로 이사간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 사회에 통합되며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된다. 실질적인 소득이나 지위의 변화가 없더라도 아랫동네로의 이사는 주택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의 표현이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로 이사간 아주머니는 “저놈의 윗동네때문에 우리 집값이 안 오른다”며 걱정이고 윗동네 아주머니들은 “밑으로 이사 가더니 5천원짜리 파마하고 다니며 빠진다”고 응수한다.

---

註 4) 임희섭, “한국에 있어서의 貧困問題” 「韓國社會開發研究Ⅰ」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9. pp.105-110. 國土開發院研究, 上揭書, p.17.

表 3 - 9 管内轉出入 申告件數

	신 고 건 수				계
	아래→아래	아래→위	위→아래	위→위	
'84. 1	29	13	19	40	101
2	13	6	10	29	58
3	70	16	15	60	161
4	95	14	29	70	208
5	87	21	31	72	211
6	60	17	10	59	152

자료 : 시흥 2 동 동사무소에서 집계.

아랫동네 (일반 주택가)로 이사하기 위한 방법은 경제적 부를 획득하는 것인바, 주민들은 직업과 소득이 안정되는 봉급생활자나 어느 정도의 소득안정성을 지니는 자영업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취업자격, 즉 학력이나 기술이 있던지 재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러한 자질을 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빈곤의 원인인 개인적 자질결핍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것은 고된 노동이나 절약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자녀들을 교육시켜 이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종사하는 일은 안정적이거나 저축가능한 수입원이 못 된다. 더구나 사회적 혜택이나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일의 성격상 사고와 병이 빈번하기 때문에 저축은 불가능하며 부채를 지게 되는 일이 더 많다. 결국 빈곤극복을 위한 현실적 방도란 교육을 통한 자녀세대의 성공이라는 기대는 더욱 커지는 것이다.

임금노동자와 육체노동자간의 급료와 사회적 혜택등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고용과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임금노동자의 첫째 요건인 교육이수는 빈곤층 젊은이들의 사회적 상승이동의 중요한 통로로서 간주된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집착은 강한 상향지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의 지배가치에 깊이 통합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생계비 부족으로 가능한 모든 가족원이 소득활동에 참가해야 하는 환경과 주민들의 소득수준에서 3개월마다 일인당 1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중고등학교 교육비와 6개월에 50 만원을 지급하는 대학교육비를 감안할 때 교육의 효과가 기대되는 기능을 하기란 매우 어렵다.

金 恩實이 봉천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인용해 보자. “지역 내 55 가구 중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10 명이고 졸업자는 5 명이다. D씨 아들은 주간에 장사를 하는 아버지를 도우면서 야간 인문고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학교 졸업 후 9급공무원이 되었는데, 월급이나 승진 그리고 사회적 인정도에 있어서 대학 졸업자와의 격차가 심하여 그것을 극복하려고 방위병 복무를 끝낸 후 방송통신대학을 다녔다. 그러다 정규대학을 가기 위해 지난 2년동안 소득행위를 하지 않고 입시 준비를 하였다. 학과와 도서관을 이용하여 공부하는 이 아들에게 한달에 평균 4~5 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부인의 행상소득과 부식비 절약에서 충당되었다. 첫 해에 예비고사 점수가 낮아 대학진학이 좌절되었다. 82년 5월 현재 이 아들은 취직자리를 알아보면서 다시 대학입시 준비를 하고 있다. 고등학교 재학중인 A씨 장남은 지난해 주간 공업학교 진학에 실패하고 야간 공업학교에 들어 갔다. 장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이 아들은 학교졸업 후 군대에 갈 때까지 동네 전파상에라도 취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사례들은 현재까지 이 지역 자녀들의 고등학교 교육이 안정된 직업 획득과 사회적 상승이동의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부모는 물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우선적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한 소득활동 참여가 불가피해지는 환경으로 인하여 상급학교 진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열려있는 취직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충실한 학업이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5 가구중 대학 졸업자녀의 성공사례는 없고 인근 5 통에 두 사례가 있다.<sup>6</sup> 이 경우 자녀중 한 사람의 고등교육 이수를 위하여 나머지 가족원

註 5) 金 恩實, “韓國都市 貧困의 性格에 관한 연구: 奉天洞 無許可 居住地域 事例를 중심으로, 「人類學論集」 제 7 집, 서울대학교 人類學硏究會.

1984. p.94.

6) Ibid. p.95.

모두가 희생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 사례는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고 어머니가 행상을 하여 장남을 대학까지 졸업시켰다. 아들은 졸업후 교사로 취직을 하고 일반 주택가에서 결혼하여 살고 있는데, 그는 자신이 이룬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들을 도울 여유가 없다. 또 다른 경우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여동생들이 모두 국민학교 졸업 후 버스 안 내양을 하며 장남의 대학공부를 도왔으나 결혼 후 그는 봉천동 외부에서 거의 접촉없이 살고 있다.

이들 지역의 대학 졸업자들은 주민들이 교육에 기대하는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다. 그들은 취업이나 소득이 보장되는 특출한 자격증이나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채 졸업하는 것이 보통이고 또 취직을 하더라도 자기 가족 외에 본가를 도와 줄 만한 소득수준이 못 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가끔씩 나타나는 교육의 성공사례는 개인적으로 도시의 중산층에 편입될 수는 있지만 나머지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빈곤극복과는 별 관계가 없다.

이농민들은 자신들의 현실적 위치가 현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적 책임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주위에서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개인적 성공사례는 빈곤을 개인적 능력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주민들에게 제시한다. 그러나 현상태에서 주민들의 빈곤의 직접적 원인은 비공식 부문의 직업적·경제적 불안정이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구조내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부문의 기능과 의미에 관계된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 중에서도 사무직이나 자영업자등 자본이나 공식 경제부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승진이나 근무연수에 따른 임금상승, 가계변영에 따른 수입증가로 저축이 가능하고 일반 주택가로의 주거이동도 가능하다.

## 第 4 章

# 經 濟 行 爲

### 1. 就 業 經 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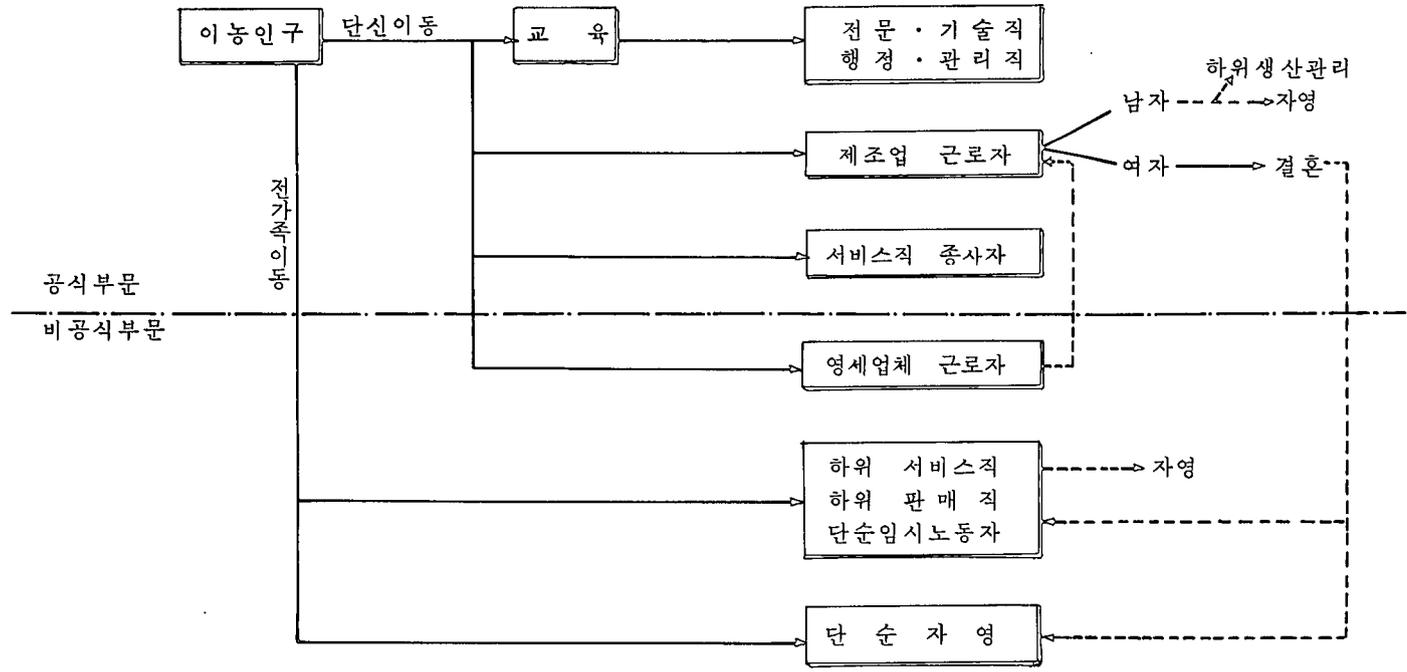
취업경로는 이농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단신이동의 경우에는 대개가 미혼으로 청년층인데 이들은 제조업체의 근로자나 영세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60 - 70년대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대량의 고용창출과 단순노동의 필요에 따라 비교적 쉽게 제조업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이 경우에도 도시에 기존의 친척, 친지의 연결망이 있을 경우에는 판매직이나 하위 서비스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보인다. 전가족 이동의 경우에는 이와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물론 미혼 청년층의 경우에는 단신이동의 경우와 비슷한 경로를 밟으나 가구주의 경우에는 연령, 기술, 학력등의 문제로 생산직에 취업하지 못하고 그밖의 자영업이나 임시적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고연령층의 경우에는 하위 판매직에서부터 건설업등의 일용노동자, 하위 생산직인 장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에 참가하고 있다. 참고로 인구 및 주택 센서스의 직업별 이동인구를 보면 <표 4-1> 과 같다.

表 4 - 1 職 業 別 移 動 人 口 (14세 이상)

	1966 ~ 70			1971 ~ 75			1976 ~ 80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시 부	1,480,626	701,208	779,418	1,471,088	654,027	816,981	1,122,907	970,636	1,152,271
1. 경제활동인구	839,103 (56.7)	551,607 (78.7)	287,498 (36.9)	865,042 (58.8)	491,085 (75.1)	373,957 (45.8)	1,179,991 (55.6)	690,878 (71.2)	489,113 (42.4)
취업자	810,403 (54.7)	529,640 (75.5)	280,793 (36.0)	810,710 (55.1)	453,849 (69.4)	356,861 (43.7)	1,095,408 (51.6)	638,458 (65.8)	456,950 (39.7)
0/1 전문기술및관련직종사자	28,936 (2.0)	21,455 (3.1)	7,482 (1.0)	27,276 (1.2)	19,251 (2.9)	8,025 (1.0)	50,012 (2.4)	34,488 (3.6)	15,524 (1.3)
2 행정 및 관리직종사자	4,773 (0.3)	4,491 (0.6)	283 (0.4)	3,427 (0.2)	3,220 (4.9)	207 (0.03)	3,933 (0.2)	3,871 (0.4)	62 (0.01)
3 사무 및 관리직종사자	63,147 (4.3)	50,805 (7.2)	12,342 (1.6)	69,454 (4.7)	46,429 (7.1)	23,025 (2.8)	132,232 (6.2)	77,342 (8.0)	54,990 (4.8)
4 판매종사자	121,525 (8.2)	87,926 (12.5)	33,599 (4.3)	104,177 (7.1)	69,826 (10.7)	34,351 (4.2)	130,377 (6.2)	87,257 (9.0)	43,120 (3.7)
5 서어비스직 종사자	157,168 (10.6)	48,370 (6.9)	108,798 (14.0)	134,156 (9.1)	41,736 (6.4)	92,420 (11.3)	126,282 (5.9)	54,663 (5.6)	71,619 (6.2)
6 농업, 축산업, 임업, 수 산업 및 수렵업종사자	26,361 (1.8)	18,636 (2.7)	7,726 (1.0)	25,657 (1.7)	17,055 (2.6)	8,602 (1.1)	19,975 (0.9)	14,159 (1.5)	5,816 (0.5)
7/8/9 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수장비운전자 및 단순노무자	370,601 (25.0)	261,149 (37.2)	109,451 (14.0)	439,937 (29.9)	249,761 (38.2)	190,176 (23.3)	632,497 (29.8)	366,678 (37.8)	265,819 (23.1)
× 분류불능자	36,678 (2.5)	35,843 (5.1)	836 (0.1)	6,626 (0.5)	6,571 (1.0)	55 (0.01)			
미 상	1,241 (0.08)	965 (0.1)	276 (0.04)						
2. 비경제활동 인구	641,522 (43.3)	149,603 (21.3)	491,920 (63.1)	605,966 (46.2)	162,942 (24.9)	443,024 (54.2)	942,916 (44.4)	279,758 (28.8)	663,158 (57.6)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1970, 1975, 1980 (인구이동편).

그림 4 - 1 離農人口의 就業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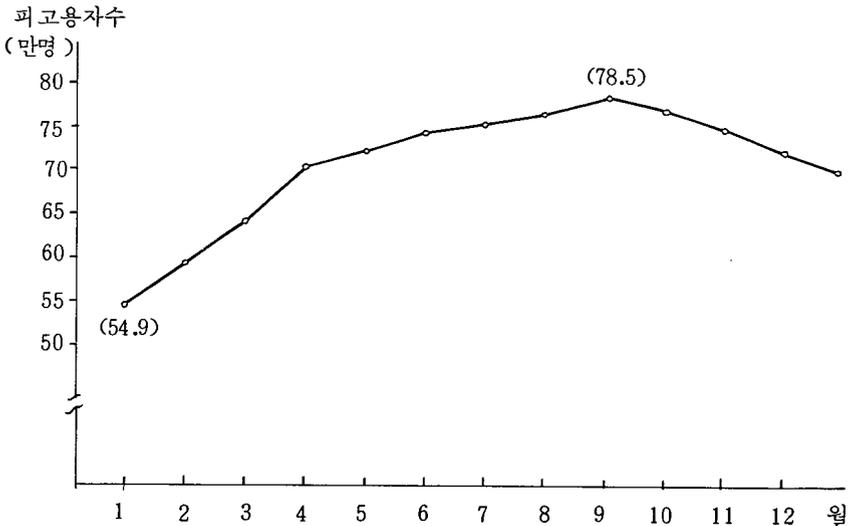
<그림 4 - 1 >은 이들의 취업경로를 그려 본 것이다. 광범위한 현지조사에 의해 이 그림은 보다 세련화되어야 할 것이다.

## 2. 네트워크 (Net work)

이농민들은 연령, 학력, 기술등의 이유로 고용상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무허가정착지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축노동자들의 경우( 4 장 3 절 참조 ), 년중 작업일수는 150 일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그림 4 - 2 >는 건설업 월별 피고용자 수의 변동을 보인 것으로 계절적 변화에 따른 취업의 불안정성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고용의 불안정성은 다시 취업기회와 소득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이런 특성은 고용에 대한 家口單位의 生活戰略을 발생시킨다. 이 自助體系 ( Self - help system ) 의 한 방법이 Network 이며, 다른 한 방법이 가구원의 노동 ( 시장 ) 참여이다.

그림 4 - 2 建設業 月別 被雇僱者의 變動, 1982



자료 : 경제기획원, 「 건설업 통계조사 보고서 ( 1982 ) 」, 1983 에서 작성  
 윤진호, 도시비공식부문, 「 한국자본주의론 」, 까치, 1984. p.280 에서 인용

고용의 경우 自助體系는 건설부문 노동자들의 경우 보호자-종속자(Patron-client) 관계를 원리로 한 독립집장의 組, 행상의 연결망, 밀집된 가내공장에서 친척이나 이웃 사이의 협동등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조체계는 역으로 상위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무허가정착지에 흠어져 있는 노동력을 도시경제의 중심부로 끌어 올리는 역할을 수행하여 도시자본축적에 일정한 기능을 한다.

Network 분석은<sup>1)</sup> 1940년대부터 성행하여 왔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 모든 사회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표현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이때 Network은 하나의 連結狀을 나타내는 중간단계의 미시구조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교환을 행한 그 결과로 형성된 것이다. Wolfe에 의하면 “대규모 사회구조와 개인 사회에 위치하는 중간정도의 抽象物”<sup>2)</sup>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은 이주·직업선택·기술습득·고용과정등에 작용하며, 주민들은 친족·친구·이웃·고향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물질적·비물질적 호혜관계를 맺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해 나간다. 그리고 이들이 형성한 자조체계 연결망의 움직임은 도시 전체의 생산·유통체계가 움직여 나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sup>3)</sup> 그리고 신용을 찾고 사용하는 것은 주민생활의 주요부분으로서, 일자리나 빚을 얻는 경우에 장거주에 의한 면식과 신용은 그들의 소득 획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4)</sup>

1) Lomnitz는 라틴 아메리카 도시의 이주자들 사이에 형성된 다양한 연결망을 발견하고, 이를 도시내에서의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주변적 인구의 특수한 반응이며, 생존을 위한 설계 (design for survival)라고 설명한다.

Lomnitz, L.A. Networks and Marginality: Life in a Mexican Shantytown. (N.Y: Academie Press) 1977. p.149.

2) 朴桂榮, “無許可定着地 住民의 經濟行爲에 관한 一考察”, 「人類學論集」 제6집, 서울대학교 人類學硏究會, 1983. p.6

3) 許碩烈, “도시 無許可定着地の 고용구조”, 「한국사회연구 I」, 한길사, 1983, p.258.

4) 朴桂榮, 상계서, pp. 43-44.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노동자의 취업과 부업(외주 하청)에서 나타난다 이들의 취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결망을 이루고 있다. 이 연결망을 중심으로 생산유통과정에서의 상호관계가 생긴다. 이런 의존관계의 연결망을 수직적 연결망과 수평적 연결망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수직적 연결망은 도시경제 중심부에 더 가까운 상위의 기업(고용단위)과 무허가 정착지의 고용단위와의 연결망이며 수평적 연결망은 생산·유통과정에서 조사대상 고용단위와 같은 위치에 있는 고용단위와의 연결망이다. 전자의 경우는 하청, 원료공급, 생산물의 판로통제등으로 나타나며, 후자에서의 관계는 주로 거주 공동체내에서의 일거리의 소개, 정보교환, 협업과 같은 자조체계의 한 부분으로 나타난다.

<그림 4-3>과 <그림 4-4>는 수직적 연결망과 수평적 연결망을 도식화한 예이다.

이러한 연결망은 이주, 정착에서부터 작용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장윤식씨는 한국 사회에서는 도시화,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공식적 집단관계보다 사적 관계망이 이익 추구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관찰하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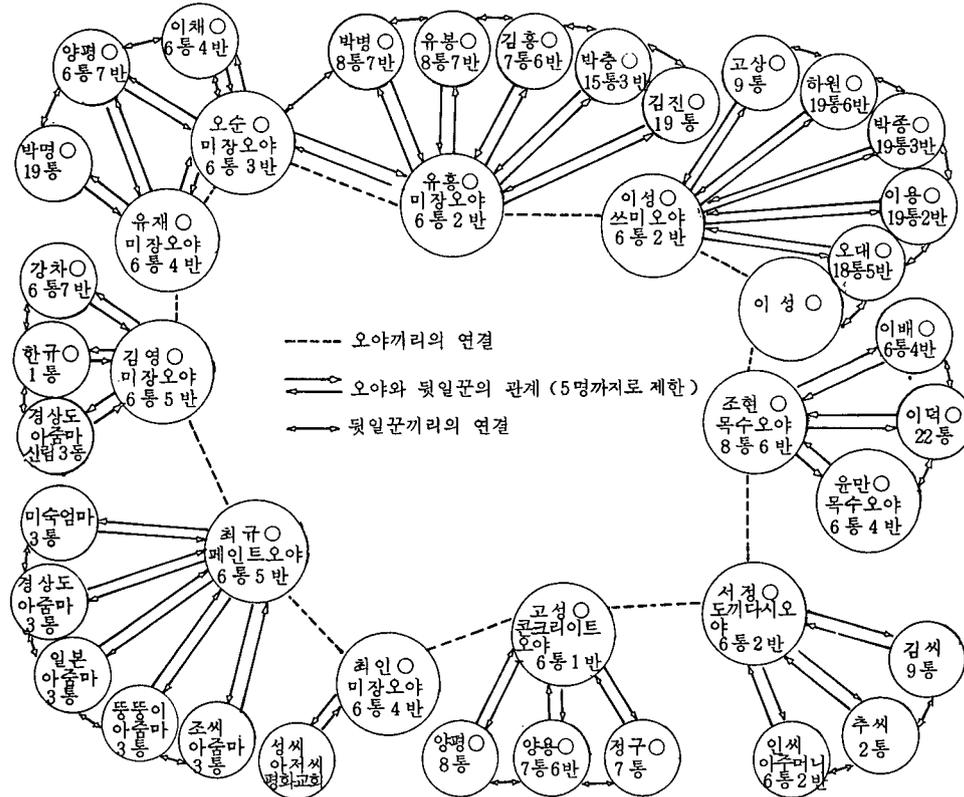
... 한국 도시에서는 친족집단, 동창관계, 동향관계등을 기반으로 관계를 조직하는 노력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이들의 목적은 인간적 연대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라고 하지만 제각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 집단관계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리적 상황에서 사적 관계(Personalism)는 복잡한 호혜적 원칙으로 특징지어지고 있어 사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부탁도 신세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세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으로 보며 이 신세를 서로 갚는 상호교환의 관습이 공리적 목적을 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시에서 널리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sup>5</sup>

무허가정착지에 살고 있는 빈민들의 사회 관계망은 농민에서 노동자로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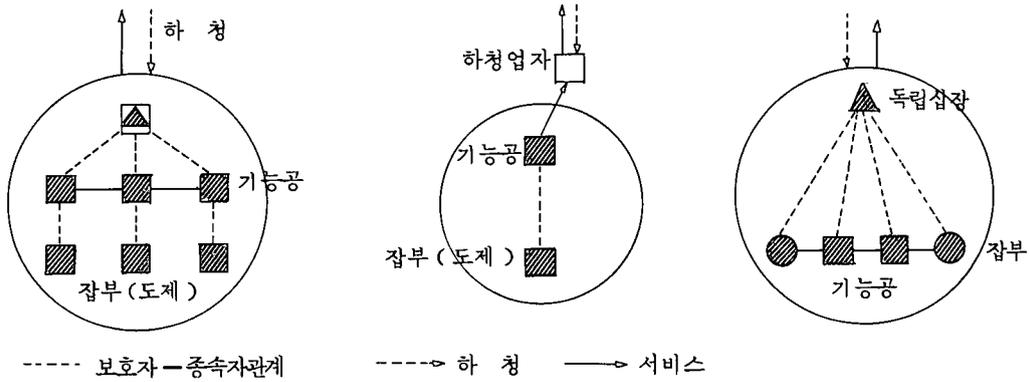
5) Chang, Yunshick, "Personalism and Social change," 「 Society in Transition 」, SNU Press, 1982.

그림 4-3 水平的 連結網의 예 : (建築) 勞働일에 있어서의 네트워크 形態



자료 : 박계영, 상계서 . p.20.

그림 4-4 垂直的 連結網의 예: 建築 勞動者의 雇傭形態



역할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sup>6)</sup> 특히 고용관계나 돈 꾸는 관계는 혈연적 친족중심에서 동료, 이웃, 친구와의 관계망으로 더욱 확대되며 이익추구의 목적에 따라 다른 관계망을 이용할 수 있다.

### 3. 家口員의 勞動(시장) 參與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의 대부분은 정규적 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단순노동 행상 외판 및 잡화상 경영등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부녀자들은 파출부, 행상 및 가내 수공업등 수입과 안정성이 낮은 분야에 취업하고 있다.

대상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무관련직 취업은 대부분 도로, 주택 및 토목공사등 건설분야의 日給노동으로서 퇴직금, 의료보험, 유급휴가 및 심지어 작업중 재해에 대한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불리한 취업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 그리고 景氣의 변

- 6) 이들의 관계가 1차집단(Gemeinschaft)적인가 2차집단(Gesellschaft)적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박계영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근본적인 유대가 以前의 장기적인 濇情主義를 떠나 어디까지나 정확한 계산하의 호혜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혈연관계아든 인척관계이든 그것은 상황적인 변이에 따라 우의며 도움을 줄 수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러한 친구 역할은 귀속적(ascribed)이라기 보다는 획득적(achieved)으로 되어져 사람들은 이웃, 공동의 이익, 공동거주, 직업의 요소들을 명확히 인지하여 여러 조합들에 있어서 친구 관계며 호혜적 책무사항에 대한 분명한 근거로 삼아 가고 있다” 박계영, 상계 논문, p.48.

이에 대하여 이효재 교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빈민지역 내부에서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은 뚜렷이 분화된 편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이들의 관계망은 2차집단적 성격과는 다른 전인격적 참여의 관계이다. 즉 생존을 위한 경제생활을 사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간적인 관계망인 것이다. 이들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관계망이 생존을 위한 연대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인간적 공동체의 성격을 띄게 되는 것이다.

이효재,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가부장적전통” 『翠英古稀記念論叢』 形成社 1983. pp.472 - 473.

表 4 - 2 家口主의 職業構成 (S동의 사례)

	스 통	ㅇ 통
(공 장) 노동	7	20
(건 축) 노동	28	30
해 외 취 업	4	7
운 전	5	4
회 사 원	3	8
석 공	3	
고 물 장 사	3	1
아 파트 경비원	3	
청 소 부	2	1
청 과 물 시장	2	
도 살 장	2	
목 공	2	
파 출 부	2	
가 계	2	2
무 직	12	26
생 보 자	6	10
기 타	5 <sup>1)</sup>	11 <sup>2)</sup>
미 상	15	18
계	106	138

1) 기타 : 미장원, 우체부, 페인트공, 중장비운전, 스님

2) 기타 : 무당, 교회선생, 우체부, 노점, 다방, 제재소, 세차, 외판원, 대서소, 복덕방, 문방구.

동에 따라 취업기회의 변동이 많고 특히 겨울철이나 장마철 등에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 그때마다 가구소득이 중단되거나 크게 줄어 가족생계에 어려움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같이 불리한 취업기회마저 제약되어 있어 이들 취업기회에 대한 경쟁이 매우 심하다. 이같이 불안정하고 낮은 가구원의 취업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구주 뿐만 아니라 가능한 많은 가구원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경제활동 참가비율은 도시 평균수준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4 - 3〉은 영세지역의 가구원 취업형태의 분포와 특성을 일반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4 - 4〉는 S 동에서 통장과 반장을 대상으로 면접하여 얻은 것이다. 부부공동 및 전가구 취업이 앞의 경우보다 많은 것은 부녀자의 부업도 소득이 되는 것이 먼 모두 취업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表 4 - 3 家口員 就業形態의 分布와 特性

가 구 원 취업 형태	가구비율	특 징
가 구 주 단독취업형	49.8 %	젊고, 경제적 활동능력이 높은 가구주로 대부분 자녀가 어리며 대도시 또는 위성도시 조사가구에 많다.
가구주+자녀 공동취업형	21.8 %	가구주의 연령이 높거나 경제적 활동능력이 낮은 경우에 많고 중·소도시일수록 많다.
부부공동및 전가구취업 형	11.6 %	부부공동취업은 대부분이 젊은 부부에 많고 대도시 조사가구일수록 많으나 전가구원 취업형은 전체가구의 3.2%에 불과하고 가구수의 경제적 활동능력이 낮은 중소도시 조사가구일수록 높다.
부녀및 자녀 의존취업형	10.8 %	가구주가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나 노령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했거나 장기실업 중인가정에 많고, 소도시일수록 많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가구원전원 비취업형	2.6 %	이들은 노인가구, 아동가구,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구로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개 공공부조에 생계를 의존한다.

자료 : 「 자조활동을 통한 도시서비스, 공급개선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82. pp.189 - 190.

表 4 - 4 家口員 就業形態의 分布와 特性 (S동의 사례)

	ㅅ 통	ㅇ 통	계
가구주 단독 취업형	19	15	34 (13.9 %)
가구주+ 자녀 공동취업형	15	8	23 ( 9.4 %)
부부공동 및 전가구취업형	57	54	111 (25.5 %)
부녀 및 자녀 의존취업형	30	18	48 (19.7 %)
가구원 전원 비취업형	11	9	20 ( 8.2 %)
미 상	6	2	8 ( 3.3 %)
계	138	106	244

#### 4. 農村과의 關係

생활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대농층의 경우 이농시 농촌에 있는 토지를 한꺼번에 매각처분하지 않고 가족일부 또는 친척·친지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식량조달이라는 이유외에도 조상과 땅에 대한 애착, 고향에 대한 귀속감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 및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려는 것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소영세농의 경우 토지, 재산을 일시에 매각 처분한 금액은 대부분 농촌을 떠나면서 빚을 청산하거나 도시적응시의 주택구입비, 정착기반을 마련하는데 사용된다.

전가족이동이 주로 토지를 매개로 하여 농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비해 부분가족 이동( 단신이동 포함)은 送金과 방문을 통한 관계가 주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단신이동은 미혼, 청년층이 농촌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면 농촌과의 관계는 일단 끊어지며 儀禮的( 제사, 결혼)인 관계에 국한되다가 가족합류 또는 부모사망후에는 거의 완전히 끊어진다.

<표 4 - 6>은 송금방법에 따른 송금자의 분포를 보인 것이다. 이농시기가 오래 되고 전가족이동이 주를 이루는 S동의 경우 “하지 않는다”가 90%를 넘고 있다.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임금수준이 높고 출신농가의 생활수준이 높은 S전자 보다 영세농 출신의 비중이 높은 S점유에서

表 4 - 5 耕地規模別 土地處分方法

	전부일시 매각	친 임	척 대	친 지	가 일	족 부	단 매	계 각	무응답	계
1천평이상	2				3		1			6
2천평이상					2			2		5
3 "	1	1		1	2			1		5
4 "					1					1
5 "	1				1		1			3
6 "										
7 "										
8 "	3				1			2		6
무응답	4				1			23		28
계	11	1		가	11		2	28		54

表 4 - 6 送 金 方 法

송금방법	( 여 ) S 전자	( 남 ) S 전자	S 섬유	S 동
매달·일정액씩	10 (7.2)	1	7 (9.1)	3
매달·금액은 유동적	4 (2.9)	2	6 (7.8)	
여유 있을때만	56 (40.6)	1	27 (35.1)	
기 타	7 (5.1)	1	7 (9.1)	1
하지않는다	54 (39.1)	3	16 (20.8)	50
무응답	7 (8.1)	3	14 (18.2)	
계	138 (100.2)	11	77 (100.0)	54

의 송금자가 더 많다는 점이다. (물론 절대액은 더 적다, 부록참조). 영세농가 출신의 근로자가 가계비 보조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7</sup>

농촌출신 근로자의 송금보조는 정기적인 송금보다는 “필요한 때”(예를 들면 동생의 학자금, 결혼비용, 부모님의 병환이나 장례비용)에 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나이를 먹을 수록” “최근으로 올수록” 독자적인 가계를 꾸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S전자와 S점유 노조위원장의 말)

이상을 종합해 볼때, 일본의 出家노동력이 回歸性과 地域的 限定性을 특징<sup>8</sup> (일본의 農業構造가 兼業的 小農構造임에 기인함)으로 하는 데 비해, 半商業的 小農構造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에서의 단신이동은 “대도시 집중형”이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일 뿐, 현실적인 고려는 별로 되지 않으며, 이들은 점차 농촌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7) 우리가 송금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일 것이다. 첫째, 농가경제에서 생산단위와 소비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점에서 볼 때, 가계비와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을 분담하는 방법의 하나로 家族의 分散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농촌·농업부와 도시·산업부문의 관련성을 밝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농업부와 공업부문의 관련성은 가계수준에서의 노동력이동만이 아니라, 농업자본의 농외유출, 농외자본의 농업진출도 동시에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력이동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자본주의가 확립될 당시(1920년대)의 出稼型 노동력과 한국의 노동력 이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들이 볼 때 강압적 통제와 강제송금을 기본으로 한 1920년대의 노동이동과 현재 한국의 단신이동은 그 형태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또한 계절적 순환이동(rotating migration)을 특징으로 하는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Meillassoux의 분석도 한국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송금에 관한 우리의 조사(부록 참조)는 조사시점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참고로 박경수의 송금에 대한 조사는 남자(또는 여자)중에서 송금자의 비율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송금자 중에서 남자(또는 여자)의 비율을 구함으로써 因果關係가 逆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지적해 둔다.

8) 大川健嗣, 出稼ぎの經濟學, 紀伊國產書店, 東京, 1978.

## 第 5 章

### 文化的 特性

문화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이농민은 농민적 특성, 농촌문화를 얼마나 지속 또는 변화하고 있는가? 둘째로는 이들이 과연 빈곤의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 1. 農民文化的 變化와 連續

Chicago 학파의 Wirth와 Redfield는 문화를 도시 사회에 특유한 것과 농촌사회에 특유한 것으로 나누고 이를 대비시키는 이른바 이분법적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사회과학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Wirth는 도시의 특수한 문화적 성격을 도시성(Urbanism)이라고 이름짓고 그것은 도시거주자들이 지니는 사회적인 관계의 특징인 물인격적(impersonal), 피상적(superficiality)이며 끼리끼리 모여서 분파를 형성하는 것(segmentality)으로 표현하였다. 그에 의하면 “보다 큰 영역이 더 많은 인구에 의하여 밀집 현상을 이루게 되면 그만큼 그 사회의 異質性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도시성과 결부된 특징들이 더욱 더 촉발될 것”이라고 한다. 즉 넓은 공간, 높은 인구밀도, 고도의 이질성이라는 세 요소의 결합상태는 도시에 대한 Wirth의 모델의 근간을 이룬다.<sup>1</sup>

---

1) Hannerz, Exploring the C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김광역, “빈곤의 문화와 제 3세계”, 「현상과 인식」 6권 4호, 1982에서 재인용

Redfield (1947)는 이와 대조적으로 농촌과 부족사회에 치중한 연구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문화를 대비하였다. 그는 “이상적인 농촌 사회 (folk society)는 현대 도시에서 발견되는 바의 것과 대조적인 특성들의 집합체로서 정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도시와 농촌(혹은 민속 사회)과의 사회 문화적 특성의 대비와 농촌사회의 변화에 대한 도시의 영향등에 대한 해석에 주력하였다.

그에 의하여 농촌 사회는 외부와의 접촉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고립된 사회로서 주민들은 매일매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인구의 사회적 분화도 발달하지 않고 따라서 지역적 이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동도 거의 없으며, 모두 지식의 소유 정도나 감정, 행동방식등이 같은 동질성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동질성은 문화의 동질성을 낳게 되어 사람들은 동일한 가치관, 행위 규범, 신앙 체계 등을 공유하고 모든 사회적 경제적인 생활에서는 상부 상조하고 조화와 일체감의 유지에 호소하여 결정한다. 가족관계와 친족 관념이 중요시되고 따라서 대가족의 유형이 보편적이며 지역 주민은 모두 한가족이라는 감정으로 얽혀 있다.

Redfield와 Wirth의 도시 문화와 농촌문화라는 이분법적인 모델을 종합하면 결국 농촌 문화의 특성들은 농촌이 점차 도시로 변해감에 따라, 그리고 농촌사람들이 도시로 옮겨감에 따라 상실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전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지역에 들어오면서 동질성은 고도의 이질성으로 대체되고 모든 독자적인 특성들이 한데 용해되어 도시성이라는 문화적 특성이 창출되는 바, 도시는 바로 문화의 용광로 (melting pot)인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더 이상 가족적인 가치관과 관념으로 인간관계를 맺지 않으며 감정의 이입 없는 피상적이고 각자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는 태도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최대로 하려 들고 상대방은 자기의 이익을 차지하려는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고 지극히 물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의거하여 처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 중심적이고 농촌 문화의 도시에로의 통합내지는 융해과정에 초점

을 맞춘 연구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 도시·농촌의 양극적 모델은 현지 조사를 통한 경험조사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되었다. 즉 도시 문화의 농촌침투에 의한 농촌의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변화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 문화의 변화, 그리고 두 개의 상이한 생활환경사이를 오고간 사람들이 체험한 突然的이고 광폭한 변화를 고려해 보면 사회와 문화는 단순히 이분할 수가 없으며 도시와 농촌 사회에도 문화적인 특성은 겹칠 수가 있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개념이 “도시 속의 농민”이다. “도시 속의 촌락민” 또는 “도시와 농촌의 접합현상”이란 관점에서 행해진 보고서들도 많이 볼 수 있다.<sup>3</sup> 즉 이들은 文化的 變化보다는 連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의 조사들에서 얻을 수 있는 점은, “連續 속의 變化”(Change in Continuity)라기 보다는 “變化 속의 連續”(Continuity in Change)이라는 관점이 한국의 도시 사회에는 보다 적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무허가정착지 주민들의 생활은 옆집에 대해서도 벽이 얇아 얘기가 들릴 정도이므로 서로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따라서 경사가 낮을 때에는 같이 참여해주고 어려운 일에도 크게 도와주지는 못한다해도 참여하는 폭은 상당히 넓다. 또한 겨울에는 드물지만 나머지 계절에는 골목마다 부인네들이 둘러앉아 식사하는 광경을 일상적으로 목격할 수 있으며<sup>4</sup>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도 1차적으로는 이웃에게서 돈을 융통

2) 빈센트·브란트, “서울의 貧民街와 移住農民”, 「한국의 전통과 변천」,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pp. 146 ~ 147.

3) 鄭姿煥, “서울 변두리 가족생활의 변화와 연속”,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1982.

서울대 환경대학원 자치회, 「서울시 불량주택지구의 주거실태 및 어린이문제에 관한 연구」, 1980.

Mangin, W. (ed). Peasants in Cities : Readings in Anthropology of Urbaniz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1970.

4) 朴桂榮, 無許可 定着地 住民의 經濟行爲에 관한 一考察, 「人類學論集」 제 6집, 1982, p.p 46 ~ 47.

하곤 한다. 서로 곤궁한 처지이므로 빌리는 액수는 10만원 이하의 소소한 편이며 더 큰 규모의 돈이 필요할 때에는 먼 친척에게서 돈을 융통한다든지 아니면 시골에서 빚을 얻어온다.

그러나 그들은 늘 얼굴을 대하고 또 생활환경도 비슷하며 게다가 직업도 같은 관계로 인심도 비교적 후한 편이지만 이웃과 가슴속 깊이의 이야기까지를 나누지는 못하는 듯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농민에서 도시민으로의 역할 변화에 따른 1차관계의 변화이다. 인간관계의 면에서 정서적 관계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취업, 고용기회가 도시의 중심부문과 연결되어 있음에서 오는 영향은 이들이 타인과 맺고 있는 비형식적 상호작용에서 발달되는 1차관계를 이전의 친족중심의 Network에서 동료, 이웃, 친척과의 관계중심으로 변화 발달되었다.

또한 농촌공동체의 규제력도 상당히 약화되었다.<sup>5)</sup> 농촌의 모랄리티(도덕)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바탕이 된 소사회에서의 강제력이 행정적인 법률이나 강제적인 규제력으로 완전대체되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청소년문제(가출), 도발행위, 이기적 소유욕의 발산이 보다 심해졌다는 것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농촌 사회의 공동체적 질서는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 사회의 질서 속으로 통합되어 가는 “變化 속의 連續” 또는 “同質化 과정 속의 異質化”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 2. 貧困의 특수한 文化?

이들의 문화적 특성에 관하여 연구자 및 행정, 정책담당자들의 인식을 상당기간 왜곡시켜온 것이 Lewis의 “貧困의 文化”라는 개념이다.

Lewis는 사회를 도시와 농촌으로 이분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회라도 계층에 따른 문화적 차이, 즉 하위문화(Sub culture)가 있음을 착안하고 Redfield의 이분법적 시각을 비판하였다.

---

5) 빈센트.브란트, Ibid. p. 157.

그는 Redfield가 현지 조사를 한 바 있는 Tepotzlan이란 빈민지역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Tepotzlan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태도 가치관 등에서 보여지는 특징들을 “빈곤의 문화”라고 정의하였다.

그의 해석에 의하면 이들 “빈곤의 문화”에 의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모든 차원으로부터 격리 소외되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아는 바도 없으며 스스로 무관심과 냉담함 속에서 비참여적이라는 것이다. 즉 “보다 큰 사회의 주된 제도들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거나 통합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이 빈곤의 문화의 가장 주된 성격의 하나이다. 이는 …… 공포, 의심 또는 냉담등을 포함하는 …… 여러 요소 중의 결과로서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다. 빈곤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보통 노동 조합과 같은 조직에도 가입하지 않으며 정당의 당원으로 들어가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들 빈곤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자기 주변에만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벗어난 보다 큰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안목이나 관심을 결여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이 겪은 고통이나 죄가 살고 있는 극히 제한된 조건과 가족을 떠나서는 그저 이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으로서 자기들과 구별되는 다른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자기들의 문제점들 사이에 있을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아무런 지식이나 안목이나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 그들은 계층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Lewis의 “빈곤의 문화”에 대한 연구는 빈민의 생활 양식을 심층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빈곤계층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이해를 주도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란 Lewis의 정의에 의하면 세대를 통하여 전수되는 삶의 디자인을 제공해 주는 바탕이며, 빈곤의 문화는 빈민집단의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의지와 통제력을 벗어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조건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하여 택하는 적응과정의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빈곤의 문화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Lewis의 연구는 동시에 종래의 연구가 외부로부터의 관찰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비하여 빈곤계층

의 사람들의 관념과 관점을 통한 내부로부터의 접근법을 사용했다는 방법론상의 중요성을 지닌다.

이러한 Lewis의 접근은 그 접근방법과 해석상의 한계 및 비일관성이란 점에서 비판받고 있지만<sup>6</sup> 우리에게 있어 특히 중요한 점은 그 개념의 함목적성이다. Lewis는 빈곤의 문화에서 ‘빈곤’은 그대로 놔두고 ‘문화’만 고치면 자연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문화에 치중한 나머지 실제에 있어서 ‘빈곤’이란 것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지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빈곤은 그대로 존재해도 그것에 결부된 문화만 없애면 되는 것 같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빈곤의 문화를 빈곤으로부터의 탈피 대신에 빈곤의 지속과 재생산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많은 빈곤 연구가들에 의해 반복되었고 빈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 및 행정의 차원에서도 그대로 채택되어 왔다. 즉 빈곤의 문화는 사회적, 병리학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빈곤계층의 집단을 강제로 철거시키는 급진적이고 피상적인 방법과 소위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중간 계층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으로 이를 대체시키는 점진적인 방법이 시도되었다.<sup>7</sup> 빈곤 계층의 사람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적응하는 데 실패하는 모든 것은 그들 자신의

6) 자세한 것은

김광억, Ibid. pp. 47 ~ 48.

7) 國土開發研究院。

「自助活動을 통한 都市 서비스供給改善方案研究」, 國土研 82 ~ 11. 1982, pp. 31 ~ 61.

무허가 정착지 주민들이 중산층의 문화 규범과 가치체계에 깊이 통합되어 있는 것은 4 장에서도 기술한 바 있지만, 다음의 사례에서 분명해 질 수 있다. K씨는 몇년전 S동에서 수해로 집이 무너져 수리비용으로 2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오랫동안 목돈을 손에 쥔 K씨는 집을 고치는 것보다 4만원짜리 중고 텔레비를 먼저 구입했다. 마땅한 여가선용기회가 없고 다른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것뿐인 이들은 아이들로부터 “무능력한 아빠”라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집을 수리하는 것보다 긴급했기 때문이다. 방안에 어울리지 않는 큰 시계가 걸려 있는 것이나, 냉장고형 쌀통이 있는 것, 산동네에서 가스로 밥해먹는 것 등은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결부시켜 탓함으로써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중간 계층의 문화적 특성이라고 간주하는 것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채택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반응은 중간 계층의 것을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이른바 계급중심적인 (Class-centrism) 사고 방식의 반응이며 “빈곤의 문화”를 부정하는 측면에서만 다른 일방적인 해석에 그 원인이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빈곤의 문화”개념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며, Lewis의 가족분석 중심의 접근방법이 지니는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다른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들은 뉴욕이나 워싱턴과 같은 지역 주민들이 건설한 노력과 서로 돕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 중 Liebow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빈곤 계층이 사회의 중간 계층과 전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일부분이며 그들의 피상적인 빈곤문화의 특징 밑에는 공유된 문화에의 노력이 깔려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이 길모퉁이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빈민)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전혀 별개의 문화적 전통을 지니는 독특한 존재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의 행동은 자기 자신의 하위문화(빈곤의 문화)의 가치와 그들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며 빈곤의 문화에 대한 모델에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은 보다 큰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관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며, 그러한 시도의 과정에서 스스로가 겪게되는 실패와 좌절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은폐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지는 것이다”(Liebow, 1967, 222)

이들의 연구는 Lewis가 “빈곤의 문화”의 특질을 빈민들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오류와 빈민들 자신에 내재해 있는 성향과 능력의 탓으로 보는 시각의 한계성을 극복하게 한다. 즉 빈곤의 문화의 특질은 외부로부터 그들 빈민에게 주어지는 상황으로서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 봐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무허가 정착지가 서구의 도시 내부 슬럼

(inner city slum)과는 그 형성배경에서 부터 다르며 이들이 자신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건전한 노력과 서로 돕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은 많은 사례에서 밝혀지고 있다.<sup>8)</sup>

Lewis 개념의 핵심인 운명론과 낮은 열망도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주민들은 자녀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기대는 상당하며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들의 自活意志는 매우 강하다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도시사회의 내부분화가 점차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

8) KDI, 「貧國의 實態와 零細民對策」, 1981.

林煥燮, “韓國에 있어서의 貧困問題” 「한국사회개발연구」, I. 아세아 문제연구소, 1979.

## 第 6 章

### 要約 및 結論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가 推論할 수 있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진행된 이농의 과정은 사회전반의 변화추세에 따른 자연적 보편적인 현상이며 그 속도의 급격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결핍 또는 비공식부문의 이상비대화라는 성격이 특별히 강조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이농은 최근 (70년대 후반 이후)으로 올수록 유희노동력의 이동에서 필요노동력의 이동이란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① 신품종의 도입 등 기술수준의 변화에 따른 농촌노동력구조의 변화 ② 특히 그 중에서도 70년대 초반에 年雇(머슴)체제의 붕괴 ③ 도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자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3)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S동은 서울에서도 주변화의 가능성이 큰 지역 중 하나이지만 주민들은 다양한 취업형태와 연결망을 통해 도시의 역동적 중심부문과 연결되고 있다.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위해, 자녀(이주 제 2세대)의 취업과 교육을 통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4) 도시 영세민이 농민문화를 계속 유지하며 빈곤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 농경사회의 문화와 의식은 점차 해체되어 새로운 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에 있다.

5) 대도시 인구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세민 지방이주정책”은 그 定着을 위한 속고가 필요하다. 이주시의 정착지원대책이 미흡하며, 이주자의 선정시 이들이 이주후 정착, 자활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 영세지역의 이입자 중 농촌 → 도시의 새로운 이농민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도시내의 지역이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도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6) 한국경제가 현재의 발전추세 - 경제구조의 합리화와 공업부문의 취업확대를 계속한다면 그 구조는 현재의 서구사회가 경험한 고전적인 자본주의 발전과 유사한 양상으로 될 것이며, 이농민이 도시사회에서 갖는 부적응(비통합)의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될 것이다.

오히려 농촌의 필요노동력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보다 긴급하며 이들 인구를 농촌지역에 흡수하기 위한 농촌개발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극히 시론적인 성격에 지나지 않는 본 연구는 광범위한 실증조사에 의해 그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하는 가설의 성격이 강하다. 이외에도 본 연구가 간과하고 있는 점들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이 비농민으로 전화하는 과정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노동력의 이동이라는 현상적 측면만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재생산구조와 노동시장의 전개라는 거시적 변동아래서 원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 비공식부문의 다양한 내부구성과 분화의 과정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완전한 자영 또는 임금노동의 중간에서 다양한 범주로 존재하는 이들의 생활양식과 사회적 분화의 과정이 규명되어야 하며 이들의 취업구조와 가계구조가 심층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조직의 광범위한 측면들이 국가정책, 행정체계 및 고용관계와 연결되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과제가 각 방면에서의 개별연구와 함께 공동연구로서 수행되어질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글의 의도는 충족되었다 할 것이다.

## 附錄 ①; 對象地域 概況

연구자들은 既存의 문헌을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分析들을 設定하고 이의 檢證을 위한 現地調査를 실시하였다. 수회에 걸친 豫備調査와 관계기관(서울시, 구로구청)과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零細民 密集住居地域으로 알려져 있는 洞중에서 조사협조가 가능한 곳으로 시흥 2동과 2개 사업장(S전자, S섬유)를 Sample로 선정하였다.

1차 현지조사는 1984年 8.1~8.7까지 S전자와 S섬유의 회사 간부 및 노조 지도자를 面接하고 自計式 設問調査(S전자 150부중 149부 회수, S섬유 100부중 76부 회수)를 실시하였다. 동 기간중 시흥 2동의 지역지도자(동장, 통장, 사회복지관장, 교회지도자등)와의 面接도 병행되었다. 2차 현지조사는 10.6~10.15일까지 시흥 2동의 2개 통에 대한 設問調査 및 面接을 실시(70부중 54부 可用)하였다.

都市地域에 대한 調査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연구자들은 洞事務所의 협조로 조사대상 가구(2개통)에 대한 주민등록표를 입수하여 사전 지식을 가지고 호별방문을 하였으나, 낮시간에는 家口主를 만나기 어려웠으며, 만난 사람들도 記憶이 희미하거나, rapport를 형성하기가 어려워 조사의 信賴度는 매우 낮았다. 특히 연구자들이 男子였던 관계로 주민의 경계심을 자극해 저녁시간 이후에는 거의 방문이 어려웠다. 개인의 一生記(life story)에 대한 面接은 參與觀察이나 面接에 의한 長期調査에 의해서만 信賴할 만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개 사업장에 대한 設問調査도 S전자의 경우 入社資格이 高卒以上이고 평균임금이 18만원 이상이며 福祉事業을 잘 운영하며 종업원의 신뢰를 얻고 있는 勞動組合의 협조를 얻어 150부중 149부의 회수율과 거의 전항목에 대한 응답이 나왔으나, S섬유의 경우, 學歷水準이 낮고 자기표현능력이 부족한 탓인지 “무응답”이 많았다.

對象者에 대한 설문은 그 事例의 特殊性 때문에 一般化에 制限을 받는

다. 또한 前年度(1983年)의 연구(연구보고 62, 農村人口移動에 관한 社會學的 研究)에서 서울로 移住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조사도 계획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했다.

따라서 본문에서 서술하는 一般論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료는 부록으로 수록함으로써 微視의 水準의 資料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다 正確한 事實은 理論의 再構成을 위한 廣域 分析이 뒤따라야 할 것임을 期待하며 약속드린다.

이 방면의 연구의 重要性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蓄積은 부족한 만큼 각 방면에서의 個別研究와 그를 綜合할 수 있는 共同研究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사절차와 質問方法 또한 토론, 개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①에서는 調查對象地域의 概況을 부록②에서는 設問調查의 結果標를 부록③에서는 調查標를 수록하였다(부록3은 실제 사용된 조사표가 아니라 分析 및 理論의 再構成 過程에서 修整, 補完한 것임을 밝혀둔다).

## I. 시흥 2 동 지역개황(1984.7.1 현재)

### 1. 일반사항

면 적 : 1.60 km<sup>2</sup> (구로구의 4%)

가 구 : 8,095 가구

인 구 : 36,410명 (남 18,582, 여 17,828)

영세민 948 가구 (4,178명)

거택보호자 78세대 140명

자활보호자 870세대 4,038명

주 택 3,806 동

허가 1,194 동, 무허가 2,612 동

판자 115, 루핑 207, 목조 2,260

주거지 7~8평 (아래쪽은 6평 윗쪽은 8평)

영세민 주거현황 자가 20%, 전세 40%, 전세방 23%,

월세방 17%

## 2. 지역사

1963년 1월

경기도 시흥군에서 서울시로 편입

1966. 6.20

철거민 이주 정착, 천막(32평)당 4세대씩 분양

1970. 5. 5

시흥 1동에서 시흥 2동 분동

1975. 9.29

시흥 2동에서 시흥 3동 분동

1979. 9.26

구로구청에 편입

## 3. 위치 :

서울 중심부에서 서남쪽 20km

북 : 관악구 신림동, 남 : 안양시, 서 : 시흥 1, 3, 4동

## 4. 취락 형성과정

- 서울시 편입당시 원주민 30가구에서 1966년부터 1973년 사이 용산구 한강로 3가동, 성동구 성수동, 서대문구 등에서 저지대, 수재 철거민 이주정착지역으로서
- 이주 당시 상단부는 국공유지 8평씩 하단부는 6평씩 배분받아 정착취락 형성
- 그후 1978년 4월부터 1980년 사이 시흥 2동 산 91번지 해발 130m 이상 철거대상 930호중 917동이 철거, 13동이 철거불능

## 5. 특징 (이 부분은 동장의 표현임) : 지역주민의 2/3는 이주 정착, 1/3은 정상주택으로

지방과별이 심하고 공동체의식 결여, 경제적 빈부격차가 심함.

가정문제 (이혼, 가출), 청소년문제가 있어 아동의 건전성장이 어렵고 지역발전을 위한 이해부족

영세민 의식구조 : 자포자기,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의욕 상실, 정부에 의타심이 많다.

## 附錄 2; 事例調查 分析結果

附表 1 이 농 유 형

이 농 유 형	(여)	(남)	S 섬 유	S 동
	S 전 자	S 전 자		
혼 자	76	4	17	23
친 구 와 함 께	3		13	
친척·친지와함께	17	1	31	
가 족 중 일 부	28	1	11	3
가 족 모 두	7	1	4	14
가 족 중 일 부	2	1		2
가 족 중 모 두		3		4
무 응 답	5			8
계	138	11	77	54

附表 2 이 주 당 시 연 령

당시연령	(여)	(남)	S 섬 유	S 동
	S 전 자	S 전 자		
0 ~ 5	7		5	
6 ~ 10	4	1		1
11 ~ 15	1	1	7	3
16 ~ 20	96	4	61	2
21 ~ 25	30	3	2	7
26 ~ 30		1	1	13
31 ~ 35		1		9
36 ~ 40				4
40 ~ 45				4
45 이 상				3
무 응 답			1	8
계	138	11	77	54

附表 3 都市貧困層의 背景別 構成要素

	推 定 比 率	變 動 의 추 세
扶養能力者가 없는 居宅保護 對象窓口	約 20 %	相對的 比率은 增加
零細農民出身의 都市移入家口	約 60 %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이나 농촌영세민의 都市移住는 계속되고 있음.
北韓難民出身으로서 未定着者	約 10 %	감소추세
不意의 事故나 失敗, 失職등 으로 零細民으로 下落한 中産層出身	約 10 %	별다른 變動 없음 (불경기 의 영향을 받음)

자료 : KDI,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대책」, 1981, p.111.

附表 4 이주년도별 이농유형

S 전 자 (여)

이주년도	무응답	혼 자	친 구	친 척 지	미 혼		기 혼		소 계
					가 족 일 부	가 족 모 두	가 족 일 부	가 족 모 두	
45 이 전									
46 ~ 50									
51 ~ 55									
56 ~ 60									
61 ~ 65		1					1		2
66 ~ 70							4		4
71 ~ 75		3			2	2			7
76 ~ 80		46	3	12	16		2		79
81 ~		26		5	10				41
무 응 답	5								5
계	5	76	3	17	28	7	2		138

## S 섬 유

이 주 년 도	무응답	혼 자	친 구	친 친 척 지	미 혼		기 혼		소 계
					가 족 일 부	가 족 모 두	가 족 일 부	가 족 모 두	
45 이 전									
46 ~ 50									
51 ~ 55									
56 ~ 60									
61 ~ 65									
66 ~ 70									
71 ~ 75		2	1	3					6
76 ~ 80		4	7	17	9	2			39
81 ~		7	5	8	1	2			23
무 응 답	4			3	1				8
계		17	13	31	11	4			76

## S 동

이 주 년 도	무응답	혼 자	친 구	친 친 척 지	미 혼		기 혼		소 계
					가 족 일 부	가 족 모 두	가 족 일 부	가 족 모 두	
45 이 전		1							1
46 ~ 50		1			1	2		1	5
51 ~ 55	1	6			1			2	10
56 ~ 60		6							6
61 ~ 65		3				2	1	1	7
66 ~ 70		4				2			6
71 ~ 75	1	1			1	4	1		8
76 ~ 80		1				1			2
81 ~						3			3
무 응 답	6								6
계	8	23			3	14	2	4	54

附表 5 이농유형별 경지규모 (S동)

	무응답	0	1,000 이하	2,000 이하	3,000 이하	4,000 이하	5,000 이하	6,000 이하	7,000 이하	8,000 이하	8,000 이상	소계
혼자	10		2	3	3	1	2				3	24
친구												
친척·친지												
가족 일부	2										1	3
가족 모두	7		3	1	2						1	15
가족 일부			1	1								1
가족 모두	2						1				1	4
무응답	7											7
계	28		6	5	5	1	3				6	54

附表 6 이주년도별 경지규모

S 동

	무응답	0	1,000 이하	2,000 이하	3,000 이하	4,000 이하	5,000 이하	6,000 이하	7,000 이하	8,000 이하	8,000 이상	소계
45 이 전												
46 ~ 50	4				1						1	
51 ~ 55	7										2	
56 ~ 60	3			1	1	1		1				
61 ~ 65	2			1	2	1		1			1	
66 ~ 70	3			1	1	2		1			1	
71 ~ 75	1			2			1				1	
76 ~ 80	2			1		1						
81 ~												
무응답	6											
계	28			6	5	5	1	3			6	54



附表 7 송 금(보내준 것)

	(여) S 전 자	(남) S 전 자	S 섬 유	S 동
있 다	(44.2) 61	3	(66.2) 51	2
없 다	77	8	26	52

송 금 액 ( 1년 )

1 ~ 4 만	2		5	
5 ~ 9 만	7	1	7	
10 ~ 19 만	18		4	
20 ~ 29 만	4	1	1	
30 ~ 39 만	6	1	2	
40 ~ 49 만	7		1	1
50 ~ 59 만	4		3	
60 ~ 69 만	2		1	1
70 만 이 상	11		2	
비 해 당	77		26	52
계	138	3	77	2

송 금 (받은것)

	(여) S 전 자	(남) S 전 자	S 섬 유	S 동
있 다	45	4	9	0
없 다	93	7	68	54

받은액수 ( 1년 )

1 ~ 4	6	1	3	
5 ~ 9	7	1	1	
10 ~ 19	6	2	2	
20 ~ 29	5			
30 ~ 39	7		1	
40 ~ 49	1		1	
50 ~ 59				
60 ~ 69	5			
70 이 상	8		1	
비 해 당	93		68	
계	138		77	

附表 8 경지규모별 송금액수

S 전 자 ( 보낸 것 )

만원

송금액 경지규모	10	4~ 4	5~ 9	10~ 19	20~ 29	30~ 39	40~ 49	50~ 59	60~ 69	70~ 이상	무응답	계
0		1										1
1,000 평이하			1	1							1	3
2,000 평이하			1	1			1	1		1	1	6
3,000 평이하			1	2	1	2	1			2	6	15
4,000 평이하										1	5	6
5,000 평이하		1	1	3		1					5	11
6,000 평이하				1			1			1	3	6
7,000 평이하				2							2	4
8,000 평이하											1	1
8,000 평이하			1	3	2	3	4	1		3	29	46
무 응 답		3	5	1				2	2	3	23	39
계		5	10	14	3	6	7	4	2	11	76	138

S 섬 유 ( 보낸 것 )

송금액 경지규모	10	1~ 4	5~ 9	10~ 19	20~ 29	30~ 39	40~ 49	50~ 59	60~ 69	70~ 이상	무응답	계
0												
1,000 평이하												
2,000 평이하												
3,000 평이하												
4,000 평이하												
5,000 평이하												
6,000 평이하												
7,000 평이하												
8,000 평이하												
8,000 평이하		2	2		1	1		2	1		8	17
무 응 답		4	5	4		1	1	1			43	59
계		6	7	4	1	2	1	3	1		51	76

※ 시흥2동의 경우 총응답자 54명중 2명이 송금을 하고 있음.

∴ 연령이 높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안보낸다고 대답하고 있음.

## 附錄 3; 調 査 表

## 이농민의 도시적응과 사회통합에 관한 설문지

〈가 구 이 동〉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민들의 이주실태와 적응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이주경험을 중심으로 몇가지 여쭙보고자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선생님은 다른 분들과 함께 면접 대상으로 선정되어, 선생님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연구자료로만 이용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리도 없고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저희에게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984. 10.

응답자: (성명)

남·녀

지 역:

동

통

, 조사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I. 가족 사항

1) 선생님의 가족사항은? (형제자매, 부모)

(농촌에 있는 가족이나,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별거가족, 혈연관계 없는 동거인도 모두 적어 주십시오.)

	관 계	이 름	성 별	나 이(띠)	최 종 학 교	종 교	혼인여부*	직 업** (구체적으로)	출 생 지	동 거 여 부*** (별거자는 주소)	☆ 월 소득
(보기)	부	홍길동	남	만 60세(위)	충남 보령농고	불 교	유 배 우	상 업 (야채상)	충남 보령군 면	충남 보령군 면	15만
1	응 답 자										
2											
3											
4											
5											
6											
7											
8											
9											
10											
11											
12											

\* 혼인여부 : 미혼, 유배우, 별거, 사별, 이혼 등

\*\* 직 업 : 구체적인 직업 및 직종기입 (공원, 미성사, 용접공, 은행원, 교사, 전도사 등), 부업 포함

\*\*\* 동거여부 : 동거, 별거, 별거자는 주소 (면까지)

☆ 월소득은 돈별이가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부업, 행사 포함), 월평균소득 (진입수당 포함)을 적어 주십시오.

## 2) 현재 거주하는 곳은?

\_\_\_ ① 자 가

\_\_\_ ② 전 세                      보증금 \_\_\_\_\_ 만원 월세 \_\_\_\_\_ 만원

\_\_\_ ③ 전세방                      계약기간 \_\_\_\_\_ 개월

\_\_\_ ④ 월 세

\_\_\_ ⑤ 기 타 (하숙, 기숙사)

주택 : 허가 · 무허가 \_\_\_\_\_ 평

지붕 : 판자, 루핑, 블록, 기와

## 3) 정부보조

\_\_\_ ① 거택보호자 (녹색카드)

\_\_\_ ② 자활보호자 (노란카드)

4) 생활정도 : 한달 쌀 소비량 \_\_\_\_\_ 말

연 탄 \_\_\_\_\_ 장

잡 곡 \_\_\_\_\_ 말

## II. 이 주 경 로

(선생님의 고향에서의 생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5) 고향(출생지)를 떠난 해와 당시의 나이는?

\_\_\_\_\_ 년 \_\_\_\_\_ 월      당시 \_\_\_\_\_ 세

6) 고향을 떠날 때 누구와 같이 떠나셨습니까?

당시 : 기혼, 미혼 \_\_\_\_\_ ① 혼자

\_\_\_\_\_ ② 친구와 함께

\_\_\_\_\_ ③ 친척 또는 친지와 함께

\_\_\_\_\_ ④ 가족중 일부와 함께

\_\_\_\_\_ ⑤ 가족 모두 함께

7) 고향을 떠난 이유(동기)는?

---



---



---



---

※ 진학 : 상급학교 진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 취업  
 사업(농사)실패, ……  
 경기변동(                    ), 가뭄('67.8년), 농촌개발.

8) 선생님은 고향을 떠날 때 구체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으셨습니까?

\_\_\_ ① 그렇다(무슨 직업 :                    )

\_\_\_ ② 아니다

8) - 1.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실 생각이었습니까?

※ 이주후 가족합류에 걸린 시간  
 직장을 얻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



---



---

9)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할 때에, 도시에서의 생활 및 취업조건에 관한 정보를 누구를 통해 들었습니까?

\_\_\_ ① 듣지 않았다

\_\_\_ ② 신문, 방송(TV, 라디오)

\_\_\_ ③ 친 척

\_\_\_ ④ 친 지

\_\_\_ ⑤ 본인이 직접

\_\_\_ ⑥ 친 구

\_\_\_ ⑦ 기 타(무엇 : \_\_\_\_\_)

10) 서울 (도시)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어떤 직업을 얻기를 희망하셨습니까?  
\_\_\_\_\_

11) 처음 이농을 생각한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 \_\_\_\_\_

무슨 일이 있고 나서 : \_\_\_\_\_  
\_\_\_\_\_

11) - ① (이농시기와 차이가 있다면)

왜 그동안 이농하지 않으셨습니까?  
\_\_\_\_\_  
\_\_\_\_\_

12) 이농 당시 도시의 경기는?

\_\_\_\_\_ ① 호경기임을 알고 있었다.

\_\_\_\_\_ ② 호경기이었지만 모르고 있었다.

\_\_\_\_\_ ③ 불경기임을 알고 있었다.

\_\_\_\_\_ ④ 불경기였지만 모르고 있었다.

\_\_\_\_\_ ⑤ 기 타

Ⅲ. 경 제 활 동

13) 이농 당시 선생님의 직업은?

\_\_\_\_\_ ① 농 업

\_\_\_\_\_ ② 비농업 (상업, 공무원, 사업, 기타 \_\_\_\_\_ )

13) - 1. (만약 농업이 있었다면) 경지 규모는?

소유 : 논 \_\_\_\_\_ 평, 밭 \_\_\_\_\_ 평, 계 \_\_\_\_\_ 평,

임대 (빌려준 땅) : 논 \_\_\_\_\_ 평, 밭 \_\_\_\_\_ 평, 계 \_\_\_\_\_ 평,

임차 (남의 땅 부치는 것, 소작) : 논 \_\_\_\_\_ 평, 밭 \_\_\_\_\_ 평,

계 \_\_\_\_\_ 평

13) - 2. 만약 비농업이라면?

월평균 소득 \_\_\_\_\_ 만원 (당시)

14) 이농 당시 농경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_\_\_ ① 전부 일시 매각
- \_\_\_ ② 친척 임대 (임대료 \_\_\_\_\_)
- \_\_\_ ③ 친지 임대 (임대료 \_\_\_\_\_)
- \_\_\_ ④ 가족 일부가 경작
- \_\_\_ ⑤ 증여 (상속 포함)
- \_\_\_ ⑥ \_\_\_\_\_ 단계 매각

⇒ 후에 단계매각

14) - 1. (⑥번의 경우)

남겨둔 이유와, \_\_\_\_\_

매각 이유 \_\_\_\_\_

15) 고향을 떠난 이후 살았던 곳 (주거이동)을 모두 기록해 주십시오.  
(한동네 내에서의 이동도 기록) (6개월이상)

	주 소	기 간	당 시 직 업	이주이유, 특기사항
(보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8.1~'79.3	공 원	
(보기)	서울 관악구 신림동	'79.3~'80.5	상업 (야채상)	집 값이 싸니까
	10 칸			

15)- 1. 최초 이주지, 선택이유 \_\_\_\_\_

15)- 2. 이 지역에서의 거주 년도 \_\_\_\_\_

16) 고향을 떠난 후의 직업이동(직장변경)을 상세히 기록해 주십시오.

최초 일한 나이 \_\_\_\_\_ 세

직 장 명	직 장 주 소	퇴직년도	당시직위	월소득	옮 기 이 유
(보기) ○○방직	구로구 구로동	1980.5.	미싱사	20 만	집이 멀어서
10 칸					

※ 아버지, 처, 자녀의 직업사  
(안정된 직업만 쓰는 경향에 조심할 것)

IV. 경 제 활 동 (II)

17) 당신의 동거가족중 돈을 버는 사람은 모두 몇명입니까?

직 장 : \_\_\_\_\_ 명

부 업 (무엇) \_\_\_\_\_ - \_\_\_\_\_ 명

18) 월 총 가구 소득 \_\_\_\_\_ 원

월 총 지출액 \_\_\_\_\_ 원 (1 Page 표참조)

19) 가계비중 가장 지출이 많은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주십시오.

\_\_\_\_\_ ① 식 비 ※ 가계구조

\_\_\_\_\_ ② 의 복 비

\_\_\_\_\_ ③ 교 육 비

\_\_\_\_\_ ④ 혼례비용

\_\_\_\_\_ ⑤ 의 료 비

\_\_\_\_\_ ⑥ 주 거 비

\_\_\_\_\_ ⑦ 잡 비

\_\_\_\_\_ ⑧ 기 타 (무엇 : \_\_\_\_\_ )

20) 당신은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 저축액 \_\_\_\_\_ 만원

저축방법 : 예금, 적금, 보험, 꺾돈 불입, 마을금고, 신탁.

매 월 : \_\_\_\_\_ 만원씩

21) 남에게 꾸어 쓴 돈(부채)는?

은행(금융기관) : 총부채액 \_\_\_\_\_ 만원

월 이 자 \_\_\_\_\_ 부(%)

사 채 : 총부채액 \_\_\_\_\_ 만원

월 이 자 \_\_\_\_\_ 부(%)

21) - 1. 부채이유

---



---



---

※ (①실직 ②사채 ③집값 ④병 ⑤농촌을 떠나면서 ⑥사업실패 ⑦관혼상제 ⑧직업상 과실 ⑨기타)

22) 저축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



---

23) 당신은 작년 한해('83년) 동안 고향에 몇번이나 방문하셨습니다습니까?

방문회수 : 연 \_\_\_\_\_ 회

이 유 : 혼인, 제사, 명절, 문안, 결혼, 농사일, 계모임, 기타

또 고향(본가)에서는 당신을 몇번이나 찾아왔습니까?

방문회수 : 연 \_\_\_\_\_ 회

이 유 : 혼인, 제사, 명절, 문안, 결혼, 농사일, 계모임, 기타

24) 집에 송금은 언제 하십니까?

- \_\_\_\_\_ ① 매월 한다. 일정액씩  
 \_\_\_\_\_ ② 매달 한다. 금액은 유동적  
 \_\_\_\_\_ ③ 여유있을 때만  
 \_\_\_\_\_ ④ 기 타  
 \_\_\_\_\_ ⑤ 하지 않는다.  
 \_\_\_\_\_ ⑥ 집에서 필요로 할 때

※ 송금은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들어들었다면 그 이유는?)

25) 지난 12개월동안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현금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물품을 보내준 일이 있습니까? (이사온지 12개월 미만일 경우는 이사온 후 부터)

\_\_\_\_\_ ① 있 다 \_\_\_\_\_ ② 없다 (26번으로)

본인과의 관계 (보내준사람)	주 소 (보 내 준 곳)	보 낸 금 액	송 금 목 적*	보 내 준 물 품	
				물 품 종 류**	현 금 가 치
	시 구 읍 도 군 면	회 총액	만원 만원		원
	시 구 읍 도 군 면	회 총액	만원 만원		원
	시 구 읍 도 군 면	회 총액	만원 만원		원
	시 구 읍 도 군 면	회 총액	만원 만원		원
	시 구 읍 도 군 면	회 총액	만원 만원		원

- \* 송금목적 : 생활비, 학비, 사업자금, 경조비용, 의료비, 기타(자세히)
- \*\* 쌀, 농산물, 부식류, 의류, 전기·전자제품, 기타 소비재, 생산장비, 기타(자세히)

26) 지난 12개월동안 당신과 같이 살고 있는 가족중 누구라도,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분으로부터 현금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물품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사온지 12개월 미만일 경우는 이사온 뒤부터)

본인과의 관계 (보내온사람)	주 소 (보 내 온 곳)	보 내 온 금 액	송 금 목 적*	보 내 준 물 품	
				물 품 종 류**	현 금 가 치
	시 구 읍 도 군 면				원
	시 구 읍 도 군 면				원
	시 구 읍 도 군 면				원
	시 구 읍 도 군 면				원
	시 구 읍 도 군 면				원

- \* 보기 : 25번 질문과 같음.
- \*\*

## V. 도시 적응과정

27) 선생님께서 도시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



---

28) 선생님의 가족중 작년 1년동안 질병을 가지고 있어 약을 먹거나,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_\_\_ ① 있 다                      \_\_\_ ② 없 다 (다음 질문으로)

관 계	병 명	입원일수	치료 방법*	치료 비용
				원
				원
				원
				원
				원

\* 치료방법 : 입원, 통원, 투약, 물리치료, 자가치료

29) 선생님은 서울에서 얼마쯤 살게 되어서야 도시생활에 익숙해지셨습니까?

몇년쯤 지나고 : \_\_\_\_\_

무슨 일을 하고부터 : \_\_\_\_\_

30) 현재 선생님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31) 또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32) 만약 선생님께 목돈(30만원 정도)이 생긴다면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



---



---

## Ⅵ. 사회 활동

33) 선생님의 가족이 가입·참여하고 있는 친목단체, 계, 향우회, 종교단체 등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관 계 (가입자이름)	모임이름	회원수	모임수	회비	모임의목적	진행중인 활동 또는 사업
10 칸						

## Ⅶ. 앞으로의 희망

34) (미혼일 경우) 배우자의 희망직업은?

---

(기혼의 경우) 자녀의 희망직업은?

---

35) 농촌을 떠난 이후 생활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_\_\_ ① 그렇다      \_\_\_ ② 아니다      \_\_\_ ③ 더 나빠졌다

35) - 1. 그 이유는?

---



---

36) 당신은 고향(농촌)으로 다시 가서 살 생각이 있으신지요?

\_\_\_ ① 있다      \_\_\_ ② 없다      \_\_\_ ④ 생각해 보겠다

36) - 1. 그 이유는?

---



---



---

36) - 2. (없을 경우) 만약 고향(농촌)에 농토가 있으면 가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_\_\_ ① 있다      \_\_\_ ② 없다

37) “농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낱말(단어)를 세개만 들어주십시오.

---



---



---

38) “서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낱말(단어)를 세개만 들어 주십시오.

---



---



---

39) 농촌 사람과 도시 사람 중 어느 편이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농촌, 도시) \_\_\_\_\_

---



---

40)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매마른 인간관계

\_\_\_ ② 빈부의 격차

\_\_\_ ③ 세대간의 갈등

\_\_\_ ④ 주택난

\_\_\_ ⑤ 교통난

\_\_\_ ⑥ 자녀교육문제

\_\_\_ ⑦ 환경문제

\_\_\_ ⑧ 범죄와 비행의 증가

- 41) 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 42) 가난은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3) 면접자 메모 : 면접자 소감 (일생기, 직업경력, 수직이동, 빈곤화 과정, 상승이동)

## 參 考 文 獻

- 國土開發研究院, 自助活動을 통한 都市서비스 供給改善方案 研究, 國土研 82-11, 1982.
- 김광억, 빈곤문화와 제 3 세계, 현상과 인식 6 (4), 1982.
- 金大煥, 離村女性的 都市生活適應 및 職業移動에 關한 研究, 研究資料 9, 梨大 農村問題研究所, 1974.
- 金善雄, 韓國의 都市化 類型과 都市人口成長의 構成要素, 韓國開發研究院 1980.
- 金泳模, 빈민지역의 사회생태학적 고찰, 도시문제 9, 1971.
- 金恩實, 韓國都市貧困의 性格에 關한 研究: 奉天洞 無許可 居住地域 事例를 中心으로, 서울대 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1983.
- 盧昌燮, 都市 slum 地域의 社會的 特性, 韓國文化研究院論叢 10, 梨大, 1967.
- 박경수, 농촌출신 도시공업근로자의 경제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農業經濟學科 碩士學位 論文, 1981.
- 朴桂榮, 無許可 定着地 住民의 經濟行爲에 關한 一考察, 人類學論集 6, 1982.
- 박영숙, 都心地 貧民의 經濟的 適應方式에 對한 研究, 梨大 社會學科 碩士學位 論文, 1983.
- 裴茂基, 韓國勞動經濟의 構造變化, 經濟論集 21 (4), 1982.12.
- 배진한, 농촌노동력 유출과 노동시장, 勞動經濟論集 2 (1), 1978.9
- 빈센트. 브란트, 서울의 貧民街와 移住農民, 한국의 전통과 변천, 高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73.

- 서관모, 현대 한국사회의 계급구성과 계급분화: 뿌리 브루조아지의 추세를 중심으로, 한울, 1984.
- 徐相穆, 貧困의 實態와 零細民 對策, 韓國開發研究院, 1981.10.
- 서울대 환경대학원 자치회, 서울시 불량주택지구의 주거실태 및 어린이문제에 관한 연구, 1980.
- 李萬甲外, 새로운 工業團地의 形成이 農村社會構造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한 考察, 서울대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 1979.
- 이영기, 고도경제성장하의 농민층 분해, 한국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들베게, 1984.
- 李容淑, 서울근교농촌의 인구가동에 관한 연구: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 광전리의 사례, 人類學論集 5, 1979.12.
- 李 錢, 自生的 定着地의 立地 및 居住環境에 關한 研究: 서울시 新林洞 · 奉天洞 · 舍堂洞 一帶를 중심으로, 서울대 地理學科 碩士學位論文, 1983.
- 李貞煥, 農業機械化 長期計劃을 위한 基礎研究, 研究報告 66,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 李效再外編, 제 3 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한길사, 1983.
- 임희섭, 빈민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韓國社會學 12, 1978.
- 鄭姿煥, 서울 舍堂洞地域의 都市化 과정, 人文社會科學, 성심여대, 1982.
- \_\_\_\_\_, 서울 변두리 가족생활의 변화와 연속, 한국인과 한국문화, 1982.
- 趙 馨, 농촌사회의 변화와 농촌여성, 韓國開發研究院 5, 고려대 亞細亞問題研究所, 1981.
- \_\_\_\_\_, 都市貧困과 女性의 經濟活動, 韓國社會開發研究Ⅷ, 고려대출판부, 1982.
- \_\_\_\_\_, 한국의 도시 비공식부문 근로자에 대한 연구, 이대논총, 1982.12
- 崔洋夫, 農村發展과 農村計劃, 國土計劃 18(2), 大韓國土計劃學會, 1983.12
- \_\_\_\_\_, 都市 · 工業社會와 農村의 將來, 向後 10 년의 國家目標와 戰略 경향신문사 '83 심포지움, 1983.
- 韓國社會學會編,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現代社會研究所, 1983.

- 韓國基督教社會問題研究院, 한국의 가난한 여성에 관한 연구, 1983.
- 韓國福祉研究所, 저소득 시민의 생활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와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1979.
- 韓相福,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1982.
- 許碩烈, 都市 無許可 定着地의 雇傭構造에 관한 一考察, 韓國社會研究 1, 한길사, 1983.
- Bromley, R., "Introduction, The Urban Informal Sector : Why is it worth discussing ?" World Development Vol. 6 , No.9 ~ 10, 1978.
- \_\_\_\_\_ed., " The Urban Informal Sector : Critical Perspectives " Special Issue of World Development Vol. 6 , No.9 ~ 10, 1978.
- Bai, Mooki, " The Turning Point in the Korean Economy " The Developing Economies,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Vol. XX, No. 2 ( June 1982 ) Tokyo, Japan.
- Hong Doo-Seung, " Two Channels of Social Mobility : Patterns of Social Mobility in Urban Korea ", 社會科學論文集 V, 1980.
- Lee & Barringer ed., " A city in transition : Urbanization in Daegu, Korea," Publishers, Seoul, Korea, 1971 .
- Mangap Lee & Herbert R. Barringer, " Rural-Urban Migration and Social Mobility : Studies of three South Korean Cities " East-West Center, Honolulu, Hawaii , May 1978.
- Lee Man-gap, " Sociology and Social Change in Korea ", 서울대출판부, 1982.
- Lee On-Jook, " Urban to Rural Return Migration in Korea ", 서울대출판부, 1980.
- Joan M. Nelson, " Migration, Intergration of Migrants and the problem of Squatter Settlements in Seoul, Korea " Report on a Field Study for the Smithsonian Institution, Harvard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and Woodrow Wilson Center , Smithsonian Institution, July 1972.

- Mangin W. ed., " Peasants in Cities : Reading in Anthropology of Urbanization " Boston, Moughton Miffilin, 1970.
- Moser, C.O.N., " Informal Sector or Petty Commodity Production : Dualism or Dependence in Urban Development " in Bromley (ed.) The Urban Informal Sector, 1978.
- 大川健嗣, 出稼ぎの経済學, 紀伊國屋書店, 東京, 1978.
- 倉持和雄, 韓國農業機械化の現段階: 耕耘機の利用と今後の方向  
アジア經濟 XXI (10), 1980.10.
- \_\_\_\_\_, 70年代 韓國における農業勞動構造の變動, アジア經濟, 1984.1.
- 櫻井浩, 韓國稻作生産力の新段階とその構造: 1970年代の新品種普及を中心, アジア經濟, 1979.8.
- 美崎皓, 現代労働市場論: 労働市場の階層構造と農民分解, 農山漁村文化協會, 1978.
- 駒井洋, 發展途上社會の都市にたいする二分論的 接近の妥當性, アジア經濟  
Vol.21, No. 12, 1980.
- 京城帝國大學衛生調査部編, 土幕民の生活・衛生, 岩波書店, 昭和十七年.

빈 면

研究報告 79

離農民的都市適應과 社會統合에 관한 研究

---

---

1984년 12월

發行人 金 榮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동 4 - 102

登錄 1979年 5月 25日 第 5 - 10號

電話 962 - 7312 ~ 5

印刷 (株) 文 苑 社

---

---